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성약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침례의 성약, 신권의 성약, 결혼의 성약을  
예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것은 지금 누리는 우리의 행복과 궁극적으로  
승영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약속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 20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 리아호나

**성약: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 16쪽**

개심하도록 가르치는 네 가지 열쇠, 12쪽

학업, 직장, 데이트—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42쪽

나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54, 66, 68쪽





© 2010 산드라 비 래스트, 복사 금지

### 메추라기의 기적, 산드라 비 래스트

1846년, 후기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무리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쫓겨났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쇠약하며 나이가 많았다. 가진 것 없이 그들은 나룻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 임시 캠프를 세웠다. 그 같은 고난 중에 메추라기 수백 마리가 날아들어 캠프 진영에 떨어졌다. 새들은 너무나 온순하여 성도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그것들은 굶주리던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식량이 되었다.



© LEONTE STEWART. 복사 금지

### 피터슨에 위치한 가옥, 리콘데 스투어트

유타 주 피터슨에 위치한 이 평화로운 농장의 전경은 주님께서 1847년 1월 14일, 네브래스카 주 윈터퀴터스의 후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주의 말씀과 뜻”이라고 알려진 이 계시는 브리검 영 회장에게 주어졌는데, 당시 그는 성도들이 윈터퀴터스의 임시 거처를 떠나 평원을 거쳐 솔트레이크밸리로 오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주께서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하실 곳으로 이 백성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재산을 사용할지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다하여 이 일을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으리니, 너희 양 떼와 너희 소 떼와 너희 밭과 너희 집과 너희 가족에 복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36:1, 10~11)



리아호나, 2012년 7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는 언제나 중반에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제자임을 보여 주십시오

특집 기사

- 16 우리 전통의 힘  
엘 톰 페리 장로  
개척자들이 사막을 장미처럼 꽃 피웠듯이 우리 삶도 그들의 가치와 전통을 따를 때 발전할 수 있다.
- 20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24 공보, 교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 필립 엠 볼마르  
지역 공보 위원회는 교회가 지역 사회, 대중매체, 다른 교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돕는다.
- 35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라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을 잃었다 해도, 그릴로 형제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낙관했다.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평강의 강 레나이즈 히턴
- 12 교회 봉사: 학습자 내면에 존재하는 가르침 러셀 티 오스구토프

- 3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앨 프라이, 에바 프라이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줄리 톰슨

표지  
앞: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뒤: 뒷 사진: 로버트 케이시

주: 2012년 6월호 리아호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프로 럭비팀 입단 계약을 포기한 젊은이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그가 속한 팀의 유니폼에는 다양한 회사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회사들이나 이들 회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습니다.



42

**42** 최선책이 실패할 때  
스테파니 제이 번스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청년 성인들은  
일부 우회로가 사실 옳은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46** 신권 축복의 중요성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신권 축복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서  
맞닥뜨리는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줄  
것이다.

**49** 포스터: 간증

**50** 기도의 힘  
폴 벤덴버그  
필리핀 세부 섬에 사는 청소년들은  
압박을 느낄 때 '물 위로' 머리를  
들어올리고 견디기 위해 기도를 한다.

**53** 선교 임지에서: 약속과 기도  
파블로 미렐레스 베츠

**54** 순수한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엘리스 알렉산드리아 홈스  
간증을 얻는 것은 퍼즐과 비슷해서,  
한번에 한 조각씩 더함으로써 복음의  
참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58** 관중을 향한 연극  
브리트니 톰슨  
내 역할을 바꾸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내 삶은 완전히 연극이었다.



66

**59** 친절한 속삭임  
데보라 무어  
학교의 골목대장이 교회에 올 때  
제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61** 특별한 증인: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초기 개척자들,  
그분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엘 톰 페리 장로

**62** 역사 만들기  
채드 이 패러스  
쇼마, 에스테르, 카타는 헝가리에서  
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  
힘쓰다.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나는  
복음 원리에 따름으로써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66** 토머스의 간증  
조슈아 제이 퍼키  
토머스는 간증을 나눌 수 있기  
전에 간증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었다.

**68** 간증이 자라나요  
한 번에 하나의 진실을 깨닫듯  
자신의 간증을 키워 가십시오.

**69** 우리들 이야기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58

2012년 7월호, 제49권, 제7호  
리아호나 10487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윌 앤더슨

편집인: 톰 비 파이프

고문: 케시 알 에드워즈, 크리스토퍼 넬슨 이세, 퍼지 마암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윌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멜리사 메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매리,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폴러, 라켄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태커, 조슈아 제이 피커, 제드 이 패리스, 쟈 핀보로우, 폴 벤덴버그, 마리아 에이 위디슨, 멜리사 켄데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김볼 보트, 콜린 힐클라, 에릭 피 존슨,

스코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오,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베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토퍼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게일 테이트 레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예반 말슨

통 권: 제549호, 제49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o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잡지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문명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12 Vol. 36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인터넷 기사 더 읽기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Liahona.lds.org

## 성인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 공보 위원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24쪽 참조) publicaffairs.lds.org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영어로 이용 가능)

## 청소년

무료 음악, 영감을 주는 동영상,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관한 기사를 다운로드 하려면 youth.lds.org에 접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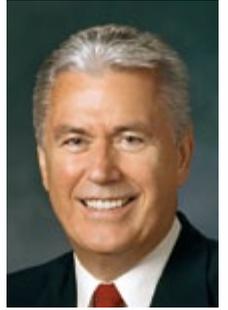
## 어린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쇼마, 에스테르, 카타를 만나 보자.(62쪽 참조) 이들의 사진을 더 보려면 liahona.lds.org에 접속한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12	성약, 20
가족, 16, 30, 41	성전, 80
간증, 30, 40, 49, 54, 66	성품, 58
개종, 30	소망, 35, 42
개척자, 16, 61	순종, 42
결혼, 30	신권, 46
공보, 24	신앙, 35, 42
금식, 64	역경, 35
기도, 38, 50, 64	연차 대회, 8
물론경, 38, 53	예수 그리스도, 10
방문 교육, 7	용서, 38
배움, 12	의식, 20
봉사, 7, 24, 80	정직, 70
사망, 10	준비, 4
선교 사업, 4, 24, 38, 53	축복, 46
성신, 12	친절, 59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우리는 언제나 중반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달력을 보면, 7월은 1년 중 한가운데에 있는 달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축하받고 기억되지만, 중간은 종종 이목을 끌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립니다.

시작은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때입니다. 끝은 서서히 마무리하고 성취감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선교 사업의 중반

젊은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종종 그들이 선교 사업 중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제 선교 임지에 도착했건, 아니면 내일 집으로 돌아가건 간에 저는 그들에게 언제나 자신이 선교 사업 중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은 자신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효과적인 선교사가 될 수 없다고 느껴서 자신 있게 담대히 말하거나 행동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 막바지에 이른 노련한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이 끝나감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또는 귀환하고서 무엇을 할지 구상하느라 바빠서 덜 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어떻든, 봉사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의 선교사들은 매일 수많은 좋은 소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선교 사업 중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님의 충실한 대표자들은 대담해지고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 우리는 언제나 중반에 있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리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중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도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보면, 우리는 그곳을 시작점이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넓은 지역의 한복판에 있을 뿐입니다.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시작, 혹은 끝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관점, 즉 우리의 영이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시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과 속죄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부모님을 모신 묘지의 비석을 다시 손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못자리가 지지분해졌기에 부모님의 모범적인 삶을 나타내는 데에는 새 비석이 더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석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줄표로 연결된 출생일과 사망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 머리와 마음에는 풍성한 추억들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 하나 하나는 부모님 생애의 중반과 제 삶 중반에 있었던 순간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삶에서 무슨 일을 겪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중반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원히 중반에 있을 것입니다.

### 중반에 있고 싶다는 희망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시작하고 끝나는 순간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영원한 삶의 중반으로 향하는 길에서 표시로 남을 뿐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에 있거나 끝나는 순간에 있거나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봉사하려는 우리의 역량을 제한하는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자 한다면 주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편 118:24). 앰울레크는 우리를 이렇게 일깨웁니다.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엘마서 34:32; 강조 첨가) 한 시인은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모여 영원이 이루어진다네.”<sup>1</sup>

언제나 중반에 있다는 것은 경기는 절대 끝나지 않으며, 희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패배는 절대 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영원한 시작과 끝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반에 있습니다. ■

주 1. Emily Dickinson, “Forever—is composed of Nows,” *The Complete Poem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1960), 624.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가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에도 어떻게 “언제나 중반에 있을” 수 있을지 가족과 토론해 본다. 그들이 과거에 연연하거나 다음 활동, 또는 계획된 일을 기다리는 대신 현재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가족이 모두 함께 이 권고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고르게 한 뒤 그 목표를 완수할 날짜를 정해 본다.

###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중반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선교 사업 중반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열두 살이든 열여덟 살이든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중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합당하게 생활한다.
- 성신의 속삭임을 기록하고 그것을 따르므로써 성신의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다.
-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
-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부탁한다.
-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에는 봉사, 경전 공부, 일지 기록 등 중요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최근에 영감을 받은 경전 구절을 나눈다. 그 경전 구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 친구들에게 어떤 종교가 있고, 무엇을 믿는지 물어본다. 기꺼이 여러분의 믿음을 소개한다. 친구들을 교회나 교회 활동에 초대한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중반의 시기에 있다고 깨닫게 되면, 주님에게 신뢰를 받고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더욱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오

1.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지 혹은 종이에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나 능력을 적어 보세요. 부모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세요.
2.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여러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3. 은사를 적은 목록 끝 부분에 이번 주 동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은사들을 활용할지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 사랑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제자임을 보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필멸의 삶을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돌보심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그분은 모범을 보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모사이야서 4:16)하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sup>1</sup>

우리가 방문 교육을 하는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보인다면,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구주께서 베푸신 성역에 가까운 봉사를 할 수 있다.<sup>2</sup>

-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 친숙하게 된다.
-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한다.
-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을 “하나씩”(제3니파이 11:15) 일일이 보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킨다.
-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집과 다른 곳에서 그들을 방문한다.
- 각 자매를 보살핀다. 생일, 졸업, 결혼, 침례 혹은 그들에게 의미 깊은 다른 특별한 때를 기억한다.
- 새로운 회원과 저활동 회원들에게



다가간다.

- 외롭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 성구에서

제3니파이 11장; 모로나이서 6:4; 교리와 성약 20:47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105쪽 참조.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3.2.3 참조.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7쪽.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타인을 보살피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신앙, 가족, 구제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신약전서에는 이름이 언급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 ……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여성들은 …… 모범이 되는 …… 제자[였다.] …… 여성들은 예수님과 십이사도들과 함께 여행했다. 그들은 성역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도와드렸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성들은 계속 충실한 제자로 남았다.”<sup>3</sup>

바울은 “교회의 일꾼”(로마서 16:1)이었던 뵈뵈라는 여성에 대해 기록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의] ……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로마서 16:2)라고 말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뵈뵈를 비롯해 신약전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여성들이 행한 봉사를 이어받아 지도자와 방문 교사와 어머니,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사람의 보호자와 원조자로서 일한다.”<sup>4</sup>

#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2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 신권 권능

**제** 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4년 초반에 신권과 관련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닌 하와이에 있었던 한 신문사 특파원이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 그는 통신원들과 함께 해병대 뒤를 이어 2차로 과절린 환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진하던 중에 물에 떠 있는 한 젊은 해병대원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을 물에 처박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물은 그가 흘린 피로 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 부상병 쪽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대원이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 대원도 부상으로 왼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병사가 익사하지 않도록 머리를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도와 달라고 외쳤습니다. 통신원들은 그가 받치고 있는 병사를 본 뒤에 되받아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그 병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어.”

특파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곧이어 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다.” 자신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 대원은 숨을 거둔 듯 보이는 동료 병사의 몸을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전우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두 청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 정결하고, 멋져 보였다. 그런 후, 한 청년이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의료 지원을 구해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이다.’ 통신원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해병 대원과 나,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이곳 병원에 있다. 의사들은 모른다. …… [어떻게 하여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67, 68쪽.



#### 생각해볼 질문

- 신권의 권능을 통해 후기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 신권 소유자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신앙과 신권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LDS.org에 있는 주제별 학습, “신권”; 줄리 비 벡, “쏟아지는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1~13쪽; 복음 원리(2009), “신권”, 67~71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 교회의 이모저모

전체 회원 수(2011년 기준)	14,441,346
스테이크 및 지방부	3,554
와드 및 지부	28,784
선교부	340
전임 선교사	55,410
교회 봉사 선교사	22,299
침례 받은 개종자	281,312
운영 중인 성전	136

## 학습 코너

### 유사한 주제 찾기: 가족

**연** 차 대회에서 한 명 이상의 연사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 몇 가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해 말씀한 네 분의 연사들의 말씀입니다.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른 유사한 주제를 찾아 보십시오.

- “남편과 아내가 각자 받은 첫 번째 부름은 서로에 대한 것이며, 그 다음이 자녀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sup>1</sup>—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둘째, 올바른 순서대로 행해야 합니다! 결혼이 먼저고 그다음이 가족입니다. 세상의 너무 많은 사람이 이 고유한 순서를 잊고 있으며 순서를 변경하거나 심지어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up>2</sup>—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가족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sup>3</sup>—쿠엔틴 엘 룩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입니다.”<sup>4</sup>—첼럴 에이 에스플린,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니”,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쪽.
2. 엠 러셀 벨라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00쪽.
3. 쿠엔틴 엘 룩, “신앙의 말씀에 따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4쪽.
4. 첼럴 에이 에스플린,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0쪽.

### 선지자의 약속

“**이** 제 이 대회를 마치며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 들은 진리를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가 이 대회를 시작하던 이를 전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대회를 마치며”,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16쪽.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충실한 회원들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완전히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에 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기있는 태도는 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다니엘 13:16~18 참조)”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의 팔에 안겨”,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7쪽.

# 평강의 강

비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희망으로 고개를 들고 전진한다.

레나이즈 히턴

**만** 아들이 사고로 죽은 날, 그 아이를 잃은 상실감이 내 영혼을 관통했다. 하지만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구주의 속죄 권능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가정 복음 교사에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임할 것임을 알았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14:18 참조) 나는 그 약속에 매달렸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간증한다.

이사야는 구주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라고 가르쳤다. 나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주이시며,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분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로 없애 주신다면 발전도 없을 것이며 이해력도 커지지 않을 것임도 알았다.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구주에게서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니파이전서 20:18 참조) 특별히 힘들었던 순간, 여러 날, 수 주 동안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내 슬픔을 씻어 내렸다. 나는 그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고를 생각했을 때, 구약전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다니엘 3:17~18; 기욤임체 추가)

핵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신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슬퍼하거나 다시 우는 일이 없을 거란 이야기는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도 겪게 되지만, 근심할 필요가 없다.

휘장 저편과 이편에 있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내딛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희망으로 고개를 들고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16:8)라는 약속을 받았다. 언젠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이사야 25:8) 것이다. ■

### 어떻게 슬픔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가 200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질문에 답했다.

“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암울했던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슬픈 날의 운명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사슬을 힘차게 끊으셨기 때문에, 절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인류의 구주로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한없이 흐르던 눈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기도를 읊조리던 입술에는 이제 경이로운 찬양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망은 단지 새롭고도 놀라운 존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그들 앞에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

구주의 삶과 영원한 희생으로 우리는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0쪽.

다음 가정의 밤에 사망, 부활, 구원의 계획에 대해 토론해 본다.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9장과 앨마서 11~12장을 참조한다.



러셀 티 오스구토프  
본부 주일학교 회장

# 학습자 내면에 존재하는 가르침

각 학습자의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페**루 쿠스코에서, 교회에서 지명 받은 임무를 수행하던 때에 저는 아내와 함께 상호부조회와 멜기세덱 신권 합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복음 교리반 교사가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첫 두 모임 동안의 일정을 조정하느라 교사에게는 자신이 준비한 공과를 가르칠 시간이 20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공과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 사이에 교회로 들어온 분들에게 일어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다섯 명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는 칠판에 5라고 쓴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에 개종한 이 다섯 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난 2년간 이 와드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16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는 숫자 5 뒤에 16이라 쓰고는 열성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자매님이 손을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다시 데려와야겠죠.”

교사는 동의했고, 칠판에 구조라고 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회원 열한 명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 뒤 그는 구조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말씀의 일부분과 신약전서에서 구주가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셨는지를 차례대로 읽었습니다.(누가복음 15:6 참조) 그리고 나서 교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 명이 손을 들었고 교사는 한 사람씩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와드 가족 혹은 개인이 어떻게 협력하여 최근 개종자를 교회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최근 개종자 한 분을 봤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건너가서 인사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말할 겁니다.”

다른 회원들도 동의했고 그런 회원들 도울 구체적인 방안을 더 내놓았습니다. 열의가 방을 가득 채웠고, 최근에 침례 받은 회원들이 다시 완전히 활동화 되도록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공과를 마치고 나가면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다시 활동화 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원 모두 그러한 느낌으로 교실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짧은 공과가 어떻게 이토록 효과적일 수 있었을까? 모든 반원이 더 충실히 복음대로 살겠다는 동기를 얻고 교실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 두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 공과 시간에 효과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게 한 네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1. 목적은 개심입니다.
2. 동기는 사랑입니다.
3. 핵심은 교리입니다.
4. 영이 교사입니다.



### 목적은 개심입니다

이 교사는 반원의 머릿속에 “지식을 쏟아 붓기”보다는 “개개인이 복음 원리대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면서 무엇인가 행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신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sup>1</sup>

간단히 말해, 이 교사의 목적은 반원들이 공과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뭔가를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구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개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심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자면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의미의 개심은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sup>2</sup> 그 공과 시간에 반원들이 한 행위의 의도는 비단 반원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이 활동화시키려는 최근 개종자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충실히 복음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 학습은 지식 습득으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심으로 이어집니다.

### 동기는 사랑입니다

페루에서 참석한 그 공과 시간 내내 저는 그 교사가 반원에게 권유하여 활동화시키려는 최근 개종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 랑은 우리가 교사가 되어 가르칠 때,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가르치셨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반원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보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교사에서 학습자에게로, 학습자에게서 교사로, 한 학습자에서 다른 학습자로, 학습자에서 최근 개종자에게까지 전달되며 방 안 가득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교사가 되어 가르칠 때,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가르치셨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가르치도록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sup>3</sup>

교사의 동기가 단지 공과 책 내용만 다루는 것이라면 그 교사는 각 학습자의 필요 사항보다는 내용에만 치중할 것입니다. 그 페루인 교사는 모든 것을 다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반원들에게 그들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은 원동력이 됩니다. 동기는 사랑이었습니.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주님은 그분의 자녀를 돕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영감으로 알려 주실 것입니다.

### 핵심은 교리입니다

그 페루인 교사는 가르치면서 공과 책을 줄줄 읽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공과를 준비할 때 공과 책이나 연차 대화 말씀을 사용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경전으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사실을 완벽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완벽하게 익히는 일입니다.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그 교사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길을 잃은 사람을 구조하라는 문슨 회장님의 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공과 핵심에 자리 잡은 교리는 신앙과 자애였습니다. 반원들은 행동하기 위한 충분한 신앙이 필요했고, 그들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교리를 확신하며 명확히 가르친다면, 주님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강화하실 것입니다. 반원들이 저활동된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제안을 할수록,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던 구주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학습과 가르침에서 핵심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마음과 생각의 빗장을 열어 줍니다. 교리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주고 고양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 영이 교사입니다

위대한 복음 교사는 사실상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복음은 영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쳐도 영이 없다면 깨우침을 줄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42:14 참조) 교사가 반원들에게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영감 받은 권유를 많이 할수록 공과 시간에 영이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페루인 교사가 영감 받은 권유를 하자 반원들은 여러 제안을 내놓았고, 영의 느낌은 점점 커져 모두를 강화했습니다.

그 교사는 공과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가르침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영의 힘으로 반원들을 권유함으로써 그 교사는 회원들이 행동하고자 하는 소망, 즉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려는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반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영에 의지하여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을 도우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영감으로 알려 주십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공과 시간에 영이 더 임재하게 하고 싶다면, 반원들에게 복음 원리대로 더 충실히 살라고 권유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원리대로 더 충실히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8:63 참조)

#### 각 학습자의 잠재력

우리는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복음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사실을 완벽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완벽하게 익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거나 공과 시간에 와드 혹은 지부 회원들을 가르칠 때, 학습자의 내면에는 이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학습자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가르침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각 학습자의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길을 추구할 때 개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며, 교리가 핵심이 되고, 영이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가르친다면, 주님의 축복으로 학습자와 교사 모두는 “모두에게서 교화”(교리와 성약 88:122)될 것입니다. ■

#### 주

1. Thomas S. Monson, Conference Report, Oct. 1970, 107.
2. 앨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성도의 빛, 2001년 1월호, 40~43쪽 참조.
3.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32쪽.

**따**라서 교사로서  
공과시간에  
영이 더

임재하게 하고 싶다면,  
반원들에게 복음  
원리대로 더 충실히  
살라고 권유만 하면  
됩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 전통의 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는 개척자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개척자 이야기라면 신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바로 옆집에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여덟  
살 때 대평원을 거의 직접 걸어서 횡단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곁에 앉아 몇 시간 동안 흠뻑  
빠져들 만큼 개척자로서 겪으신 일들을 많이  
기억하셨습니다.

저에게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언제나  
특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의 문제 해결법은  
기본적이고 근원적이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도들을 서부로 이끈  
그 영성과 열정에 탄복합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을 유럽에서 유타로  
이주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확실해지자 대평원을 건널 때 손수레를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브리검 영 회장님께

올라왔습니다. 영 회장님은 곧 그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바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열정과 영성으로 가득한  
그들이 손수레를 끌고 그토록 먼 거리를 걸어서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유익을 또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수레 부대가 그 어떤 우마차보다  
더 빨리 이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실  
우유를 얻기 위해 튼튼한 젖소 몇 마리와 몰고  
가다가 필요 시 도축해서 식량으로 쓸 육우 몇  
마리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위험,  
손실, 팀을 꾸리는 혼란스러움을 막을 수 있으며  
성도들은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땅에 묻었던  
고난과 슬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경험으로 무장한 형제들에게 적절한

HANDCART PIONEERS. 미니비 테이퍼트 © FR.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지침을 주고 장비를 꾸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어 앞서 말씀드린 것을 시행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이민 올 성도들이 직접 짐을 끌고 대평원을 걸어서 횡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시다. 그들이 바로 다름 아닌 [영구 이주] 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시다.”<sup>1</sup>

1865년부터 1860년 사이에, 천 명이 넘는

팀이 출발해 눈 속에 갇혀 고생하는 성도들을 구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 구조대가 다음 월요일에 출발했습니다. 이 구조대를 만난 윌리 부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윌리 대장은 구조대를 찾기 위해 그의 적은 일행들을 남겨 둔 채 동반자 한 명만 데리고 출발한 때였습니다.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 대장이 떠난 지 3일째 되는 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석양이 아름답게 질 때쯤, 우리 진영의 바로 서쪽 언덕에서 각각 말 네 마리가 끄는 포장마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 소식은 산불처럼 삼시간에 진영에 퍼졌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함께 그들을 보러 나갔다. 얼마 후 우리의 충실한 대장이 그 무리 앞에 약간 앞서서 달려오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기쁨에 함성이 울려 퍼졌고 건장한 남성들의 주름지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조차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으며, 어떤 어린이들은 영문도 잘 몰랐지만 함께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추었다. 모두가 기뻐하느라 자제와 조심은 잠시 잊어버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개척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그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가르치고 자랑스러워하며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손수레를 끌고 2,090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횡단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쾌거에서 아쉬운 부분은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 사건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해에 너무 늦게 출발하여 초겨울 눈보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 회장님의 기지가 다시 한 번 발휘되었습니다. 1856년 10월 연차 대회 때, 그분은 전 대회를 할애해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호 노력을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지시하여, 한 주, 혹은 한 달이라도 지체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 월요일에 즉시 네 마리 말을 탄 구조대 몇

채 형제들이 진영으로 들어오자 자매들은 그들에게 입맞춤을 퍼부었다. 형제들은 이 광경이 너무 감격스러워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목멘 고요함이 그들의 감정을 여실히 대변했다. …… 하지만 곧 흥분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한 악수와 환영 인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예전에 거의 본 적이 없었다.”<sup>2</sup>

### 굳건한 가정을 세우고

강인한 개척자들에게서 굳건한 가정을 세우는 전통과 유산이 생겨났으며 이는 미 서부와 전 세계 국가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4곳에 분점을 내겠다고 발표한 소매회사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초청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한 탁자에 함께 앉은 그 회사 사장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다, 그것도 동시에 분점 4곳을 내다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제가 기대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인구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젊은 가족이 이용하는 백화점에 대해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목적지였던 솔트레이크 지역은 이 조사에서 미국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회사는 또한 연구 결과, 솔트레이크 지역의 인력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기로 평평이 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개척자의 전통은 이곳에서 3~4세대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제 책상에 올려진 통계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현재 미국에서 양육되는 어린이 중 단지 7퍼센트만이 전통적인 가족, 즉 부양하는 아버지,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sup>3</sup> 매일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의 파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됩니다. 구타당하는 아내,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는 자녀, 학교 시설물 파괴, 청소년 범죄, 미혼인 십대의 임신, 확대 가족이 돌보지 않는 독거 노인의 숫자가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정이 사회를 구할 곳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sup>4</sup>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제대로 된 가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용기, 훈육, 헌신 등 개척자의 가정에서 가르친 똑같은 덕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사막을 장미처럼 꽃 피웠듯이, 우리가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그들의 전통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과 가족도 꽃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개척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그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가르치고 자랑스러워하며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이 어떤 책임을 수반합니까? 미국의 위대한 골프선수였던 아놀드 파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승리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정말 훌륭한 말 아닙니까? “승리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여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이러한 위대한 은사들을 보존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길이야말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

1980년 8월 3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노년의 모임에서 전한 말씀. 영어로 전문을 보려면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 접속한다.

주

1. Brigham Young, in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4:85.
2. John Chislett, in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4:93-94.
3. [www.prb.org/Articles/2003/TraditionalFamiliesAccountforOnly7PercentofUSHouseholds.aspx](http://www.prb.org/Articles/2003/TraditionalFamiliesAccountforOnly7PercentofUSHouseholds.aspx)에서 Population Reference Bureau 참조. 1980년에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는 그 수치가 13% 였음.
4. 예를 들어, 토마스 에스 몬슨,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66~71쪽; Spencer W. Kimball, “Home: The Place to Save Society,” *Ensign*, Jan. 1975, 3-10 참조.

신앙, 용기, 훈육, 헌신 등 개척자들의 가정에서 가르친 똑같은 덕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사막을 장미처럼 꽃피웠듯이, 우리가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그들의 전통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과 가족들도 꽃 필 것입니다.

#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살펴봅시다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성약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침례의 성약, 신권의 성약, 결혼의 성약을 예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sup>1</sup>

교회에서 의식은 신권 권세로 행해지는 성스럽고 공식적인 행위이다. 어떤 의식은 구원에 필수적이다. ‘구원 의식’의 일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다.<sup>2</sup>

성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며 둘 사이의 약속이다.<sup>3</sup>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 조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분은 특정한 축복을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 의식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성약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영생을 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것은 지금 누리는 우리의 행복과 궁극적으로 승영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약속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내용은 구원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살펴보고 어디서 더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다.

## 침례 및 확인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침수로써 침례를 받는 것은 복음의 첫째되는 구원 의식이며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일원이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침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확인 의식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기 위한



것이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는다. 또한 “끝까지 그를 섬기겠다”(교리와 성약 20:37; 또한 모사이야서 18:8~10 참조)고 약속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엘마서 7:14 참조)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교리와 성약 20:77)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침례와 확인 의식은 영생을 구하는 모든 이들이 통과해야 할 문이다.(요한복음 3:3~5 참조) 침례 성약을 지키는 것은 영생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이끌며, 그 여정에 있는 다른 모든 구원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맺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니파이후서 31:17~21 참조)

#### 침례에 관해 더 알아보기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쪽 참조.

#### 성찬

구원 의식인 침례와 확인을 받은 사람은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한다. 성찬을 취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며  
둘 사이의  
약속이다. 그분은  
우리가 성약을  
맺고 우리가  
받아들인 조건을  
지킬 때 특정한  
축복을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키신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성찬 의식은 매주 침례와 확인 의식과 같이 영적인 정화 효과와 함께 구주의 속죄 은혜를 입는 자가 되도록 해주는 성스러운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한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침례 성약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sup>4</sup>

#### 성찬에 관해 더 알아보기

달린 에이치 옥스, “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7쪽 참조.

#### 신권의 맹세와 성약

하나님 아버지는 신권 관련 성약을 지키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특정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다.

남성들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모세, 아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84:33~44 참조)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남성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다. 성전에서 남성과 여성은 결혼할 때 신권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신권의 모든 구원 의식을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약속을 받는다.(교리와 성약 84:35~38

## 질문에 답하기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왜 성전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죠?”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후기 성도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매주 열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성전에서는 성스러운 의식이 행해지므로 성전은 이러한 의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침례 받은 회원들에게만 공개된다.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 공개 기간에 일반인도 성전 안을 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성전이 주님께 헌납되고 나면, 성전 안에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으나 일반인도 성전 부지에는 방문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Mormon.org에 접속하여 Frequently Asked Questions(자주 묻는 질문) 하단에 있는 “Temples”(성전)을 클릭한다.

참조)

“세상에 있는 의로운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이 맹세와 성약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가르쳤다.<sup>5</sup>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관해 더 알아보기

헨리 비 아이어링, “신앙과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1쪽 참조.

### 엔다우먼트

성전 엔다우먼트는 권능과 관점을 부여하는 은사이다.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는 동안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영원한 승영과 관련된 성약을 맺는다. 씻음과 기름부음의 의식과 거룩한 성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성전 가먼트를 입는 의식은 엔다우먼트와 관련 있다.<sup>6</sup> 성전 의식과 성약은 너무나 성스러우므로 성전 밖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이러한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주의해서 귀 기울여 약속된 축복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7</sup>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반대 세력을 극복하고 교회를 전진하게 하는 성스러운 권능을 받는 열쇠는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이다.” 즉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전념하겠다는 약속이며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큰 엔다우먼트를 부여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가르쳤다.<sup>8</sup>

다음은 공부하면 엔다우먼트에서 맺는 성약 이면의 원리에 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 “순종”, 복음 원리(2009) 201~206쪽.
-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0쪽.

- “복음의 법”(교리와 성약 104:18), 교리와 성약 42편 참조.
- “순결의 법”, 복음 원리(2009), 225~232쪽.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6쪽.

엔다우먼트에 관해 더 알아보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2002), 28~35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7쪽 참조.

### 인봉

“성전 결혼” 혹은 “인봉”이라 일컬어지는 성전 의식은 배우자가 서로 충실할 때 죽음 너머서도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형성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필멸의 삶을 넘어서까지 지속되어 영원한 가족 관계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결합된다.

개인이 성전에서 결혼 성약을 맺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성약을 맺게 된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그들은 승영을 약속받고 그들의 가족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성전에서 인봉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나 이후에 부모에게 인봉된 자녀는 영원한 가족에 속할 권리를 물려받는다.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행한 의식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 하늘에서 인봉되고 유효하려면 우리가 맺은 성약에 각자 충실해야 한다.<sup>9</sup> 배우자가 성약을 지키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사람은 인봉 때 약속된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인봉에 관해 더 알아보기

러셀 엠 넬슨,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1쪽 참조.

### 성스러운 성약 맺고 지키기

이 중요한 성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66:2)을 취하게 된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모든 복음 성약과 임무를 합한 것”이다.<sup>10</sup>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으로 영생을 비롯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우리의 성약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해야 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처럼 되고자 하는 헌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몸짓만 따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요구되는 계명이나 의식이나 성약은 하늘의 어느 계좌에 적립해야 할 예금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약을 지키는  
것은 구주처럼  
되겠다는  
다짐이다.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sup>11</sup>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보편적인 추구, 성도의 빛, 1996년 3월호.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0.1.
3. 러셀 엠 넬슨, “성약”,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86쪽 참조.
4. Delbert L. Stapley, Conference Report, Oct. 1965, 14; 또한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561;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1982), 220 참조.
5. 러셀 엠 넬슨, “성약”,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88쪽.
6.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야호나, 2010년 10월호, 46쪽 참조.
7. 보이드 케이 패커, “성전으로 오십시오”, 리야호나, 2007년 10월호, 14~18쪽.
8. 제프리 알 홀런드, “성약을 지키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리야호나, 2012년 1월호, 50쪽.
9. “성신”, *신앙에 충실함*(2004), 82~83쪽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32:7, 18~19, 26 참조.
10.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클기 편, 제3권,(1954~1956), 1:156.
11. 맬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야호나, 2001년 1월호, 40쪽.

공보

# 교회와 지역사회를

신권 지도자들은  
스테이크나 지방부  
공보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 잇는 다리



필립 엠 볼마르  
교회 잡지

**캐**럴 윌트 크리스틴슨 자매는 캔자스 토피카 스테이크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기자들과 편집자들을 만나는 일에 대해 “두렵고, 자신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떨렸어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긴 했지만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크리스틴슨 자매는 자신의 간증과, 자신이 지역사회를 잘 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름이 영감 받은 신권 지도자에게서 왔다는 믿음에 의지하기로 했다. 우선 본부 공보부의 훈련을 받고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우기]’(교리와 성약 107:99)로 했다.

그녀는 어떤 내용이 기삿거리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역신문의 주간 종교 면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첫 보도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종교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저는 작은 기사라도 어떤 종류가 신문에 실렸는지를 살피고 신문에 실릴 만한 교회 활동과 화제의 인물, 성취한 일 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른 후, 크리스틴슨 자매는 대중매체와 관계하며 일하는 데에는 기삿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대중매체를 알고, 기자들이 하는 일을 돕는 동시에 그들이 교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스테이크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린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의 일을 성취한 후, 그녀는 자신감이 생겼고, “교회를 ‘희미한 데서’(교리와 성약 1:30 참조) 나오도록 이끌겠다는 불타오르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크리스틴슨 자매는 여전히 스테이크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공보부에서 주로 추구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킨



미국 르벡사 캔자스 스테이크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2년간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다. 입장료는 식료품 한 봉지였는데, 이를 모아 지역 내 식품 창고에 기부했다. 2011년에는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몇몇 다른 교회 관계자와 정부측 인사도 있었다.



사랑하고 믿으며 예배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 친구가 되고,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여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과 교회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전 세계 신권 지도자들은 공보 전문가들과 공보 위원회를 인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으며,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알린다.

크리스틴슨 자매가 처음에 집중한 방식은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었지만, 교회 공보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권 지도자들의 영감 받은 지시를 따르고, 동시에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관계

토피카에서 10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캔자스 르벡사 스테이크에서는 블루스 에프 프라이데이 스테이크 회장과 스테이크 공보 책임자인 캐럴 데술러 자매가 지역사회 유력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함께 일한다. 그들은 후기 성도들이 “선한 이웃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인식을 주고자 한다고 프라이데이 회장은 말한다.

데술러 자매는 스테이크 회장단과 스테이크 공보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다른 종교 단체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일할 기회를 찾고 있다.

“지역사회 단체들과 일하며 거둔 성공은 대부분 일대일 관계에서 비롯되었어요.”라고 데술러 자매는 말한다. 예를 들면, 스테이크 회원 한 사람과 다른 교회 사람 한 명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일을 할 방법을 의논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동반자로서 함께 일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교회에서 각기 세 명씩,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된, ‘함께 더 낫게(Better Together)’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동반자 관계는 2010년에 몇몇 교회의 합창단들이 참여한 자선 음악회로 이어졌다. 입장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지역 내 식품 창고에 기증할 식료품 한 봉지였다. 새로 지어진 스테이크센터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연 전에는 연회가 준비되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공연 후에는 다른 교회 네 곳과 시의원 두 명, 경찰서장이 함께 더 낫게 위원회에 함께하도록 요청받아 지금은 매달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 다른 교회에서 개최된 음악회에는 총 일곱 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교회들 사이에는 친선과 단합의 분위기가 무척 강했습니다.”라고 데술러 자매는 말한다. 그러한 느낌은 프라이데이 회장의 집에서 1,600킬로미터도 더 넘게 떨어진 공향에서도 확인되었다. 처음 보는 한 여성이 프라이데이 회장에게 다가와 함께 더 낫게 자선 음악회에 참석했을 때 그를 본 적이 있다며 공연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 여성은 프라이데이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그 행사에서처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느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공연을 공동 주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탄복합니다.”

프라이데이 회장은 말한다. “이런 점이 바로

공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넓히고 우리의 비전을 확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지요.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해 순수한 사랑을 느낍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로부터 협조와 존경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동유럽에서도 입증되었다. 우크라이나 공보 위원회 대중매체 담당 책임자인 카티아 세르듀크는 공보 선교사들과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돕는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그릇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 전문가들은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론 주도층과 대중매체,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애씁니다. 공보 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유력 인사들이 협력에 나설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교회가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토미르에서는 이 도시 시장인 알렉산드르 미콜라요비치 보치코브스키가 시내 일곱 개 학교에 절실히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한 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치하하기 위해 연회를 마련했고, 이 지역 교회 회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회원들은 가가린 공원에서 2011년 4월과 10월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한 적도 있었다. 지토미르 지부 알렉산더 데비도브 회장은 교회를 대표해서 시 당국의 호의에 감사를 표했다.

### 행사 계획

카리브 해 지역에서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고 최근에 귀환한 메이르 대니얼과 레베카는 대중매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것 외에도, 행사를 계획하고 개최하면서도 공보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회원들이 친구들과 함께 문화 행사나 저녁 식사, 봉사 활동과 여타 다른 활동 등 공통된 신념이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메이르 자매는 말한다.

하지만 공보 전문가들이 범할 수 있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하지 않거나 신권



##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스테이크 회장, 지방부 회장, 지역 칠십인들에게 스테이크 및 복합 스테이크에 공보 위원회가 조직되어 공보 위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일부 지방부와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곳에서는 공보 노력이 처음에는 미미하며 완전히 조직된 위원회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의 공보 책임자는 훈련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자원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사회 지도자들, 보도매체, 기타 여론 주도층과 관계를 맺을 때 공보 사업이 신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교회의 평판을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공보 위원회 회장

지도자와 협의하지 않고 활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라고 메이르 형제는 지적한다.

메이르 장로와 자매는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스테이크와 와드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를 반영하면 행사 계획 초반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메이르 자매는 연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략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필요 사항과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목표에 초점을 둔 네 단계 계획 과정을 활용해서 행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필요 사항은 무엇인가?
- 교회의 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오면 신권 지도자와 공보 위원회는 ‘활동을 위한 활동’을 피할 수 있다고 메이르 자매는 말한다. 대신에 공보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신권 지도자 사이의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신권 지도자들은 공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몰몬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몰몬 교회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에 버금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일 것이다.”



신뢰를 쌓을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교회 회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함께 어울리고 우정을 키울 수 있다.

2010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신권 지도자들과 공보 위원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몰몬 도움의 손길 활동을 알리는 행사에서 함께 일한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메이르 형제 부부는 함께 일해 왔던 국가 고위 공무원 몇 명을 초대했다.

“여러 단체와 조직을 대표하는 저명인사가 많이 참석했지요.” 교회의 지역 회장단도 그 행사에 동참했다고 덧붙이며 메이르 형제는 그때를 회상했다.

“그 행사는 매우 훌륭했어요. 시장들과 시에 소속된 단체들이 환경을 가꾸는 데 필요한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고, 덕분에 교회는 많은 단체에 좋은 인상을 주었지요.”

신권 지도자의 지시를 감안하는 것이 성공적인 행사를 계획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캐시 말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복합 스테이크 공보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말러 자매의 한 친구는 후기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잘하는데, 다른 교회 행사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말러 자매는 친구가 한 이 말을 기억한다. “너희는 그저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는 말만 하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대답은 당연히 ‘네’가 될 테니 말이야.”

공보 위원회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알아봄으로써, 직접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때도 있다고 말러 자매는 말한다.

###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통과 위기 관리

공보 업무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면에서 진행되지만, 작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스테이크, 국가, 또는 교회가 있는 지역을 도와 대처할 수도 있다.

감리 감독단의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은 2011년 지진으로 교회에 대한 대중매체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것을 직접 목격했다.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세계와 일본의 모든 이목이 황폐해진 북동 해안으로 쏠렸습니다.”

스티븐슨 감독은 재난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회에서 제공한 도움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매체들이 “엄청난 수준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쓰나미가 발생한 며칠 후, 교회는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회원들뿐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구호 물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매체들도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스티븐슨 감독은 말한다.

연간 24,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18만 시간 이상 봉사하고, 250톤 가량 되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러한 교회의 구조 활동은 수시로 현지 자치단체 지도자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스티븐슨 장로는 말한다.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 중 2퍼센트도 안 되는 그 나라 지도자 중 일부가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런 관심 때문에 공보 전문가들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얻는다고 스티븐슨 장로는 말한다.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다음 주, 한 기자가 쓴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 예이다. “몰몬 교회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에 버금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일 것이다. …… 이 교회는 소속 회원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런 곳은 아니다.”<sup>1</sup>

이 같은 긍정적인 보도가 가능했던 것은 수년간 쌓아 온 관계 때문이었다. 2010년 8월부터 북아시아 지역 공보 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코난과 신디 그램스 부부는 “일본의 공보 위원회는 수년간 일본 전역에서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이런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단체들이 기꺼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내와 함께 일본 공보 위원회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야수오 니야마 장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교회가 얼마나 효과적이고도 신속하게 구조 활동에 나서는지를 압니다.”

한 예로,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고립된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 이재민 대피소를 훌륭하게 마련했을 때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교회의 시의 적절한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다. 신권 지도자들은 공보 위원회와 지역 내 교회 복지 책임자와 함께 270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피소에 식품과 구호품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재민들은 기독교 교회의 도움에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두 번째로 몰몬 도움의 손길 자원봉사자들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치는 한 어린이의 말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왔을까 궁금해요!”

기증품을 받은 후에 이재민 거주지 관계자는 그램스 장로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진 발생 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갖다 주었습니다.”

“대피소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신권 지도자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어요.”라고 그램스 자매는 말한다.

니야마 장로는 공보 위원회의 노력으로 얻어진 다른 긍정적인 결과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우리는 교회의 구호 사업에 관해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여론 주도층과도 정보를 나누는 것이 공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더 나은 인상을 받고, 교회 회원들도 일본에서 교회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 공보, 지역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도구

범세계적인 조직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지역 환경에 대해 알고, 지역사회의 필요 사항에 적합한 도움을 주는 공보 위원회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곳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세르듀크 자매는 말한다. “신권 지도자들이 공보를 신권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기꺼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몰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그러한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 봉사를 통해 지부나 와드 회원들이 더 단합하게 되었고,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

교회의 공보 웹사이트는 [publicaffairs.lds.org](http://publicaffairs.lds.org)에서 영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  
1. Kari Huus, “In Japan, the Mormon Network Gathers the Flock,” World Blog from NBC News, Mar. 18, 2011, [http://worldblog.msnbc.msn.com/\\_news/2011/03/18/6292170-in-japan-the-mormon-network-gathers-the-flock](http://worldblog.msnbc.msn.com/_news/2011/03/18/6292170-in-japan-the-mormon-network-gathers-the-flock).

## 공보와 관련된 선지자의 가르침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신권 지도자, 공보 위원회, 교회 회원들이 공보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신권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엘 톰 페리,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1~44쪽.
- 엠 러셀 밸라드, “이름의 중요성”,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9~82쪽.
- 엠 러셀 밸라드, “신앙, 가족, 사일 그리고 열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25~27쪽.
- 고든 비 힝클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물어보니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0~72쪽.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47~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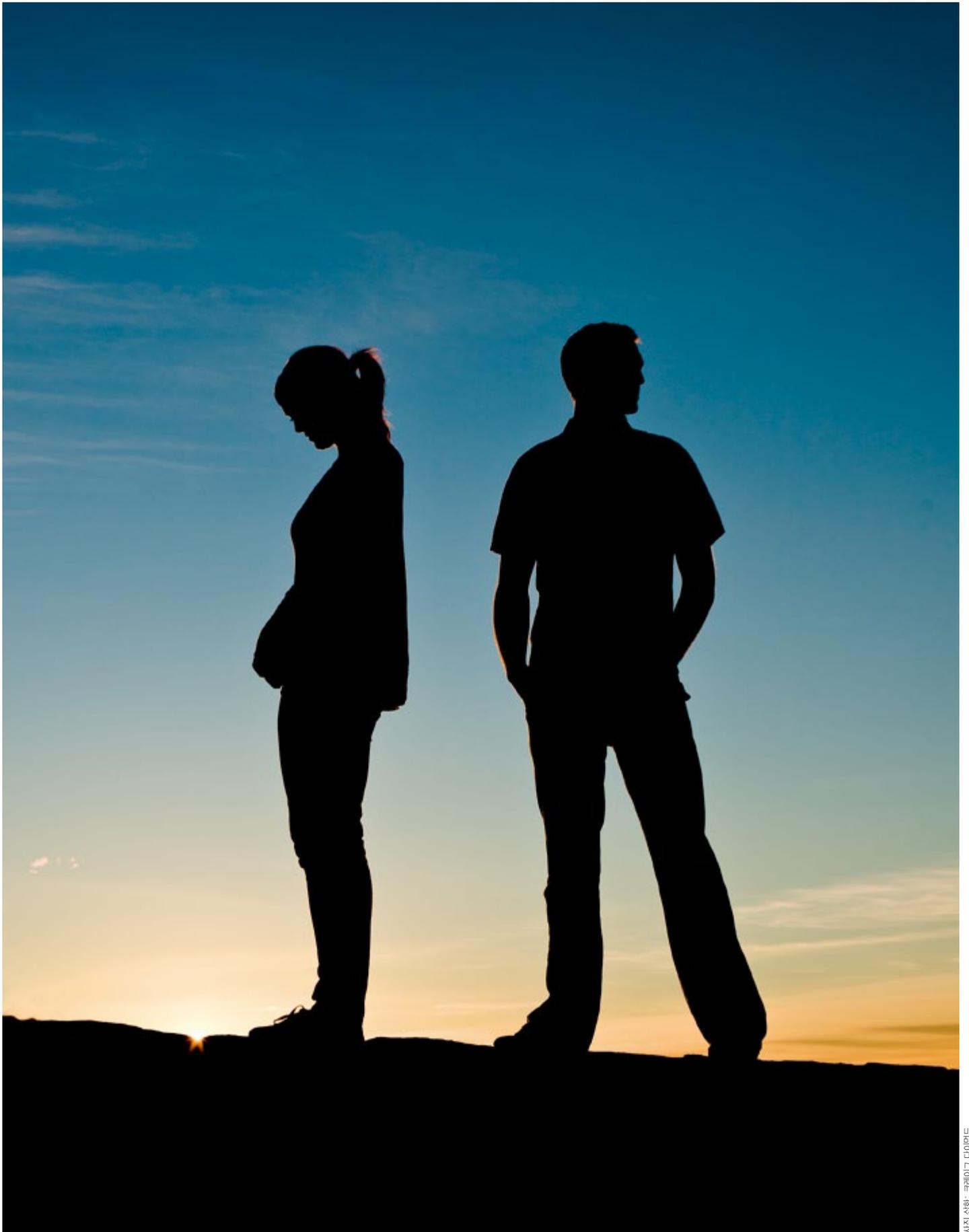


사진 상화: 크레디트 디자인드

#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 35년 차 부부의 이야기

앨 프라이, 에바 프라이

## 아내의 이야기

**35**년간 나는 남편이 교회 회원이 되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그 시간은 절실한 기도로 점철된 긴 세월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 번의 기도는 내 삶의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1959년에 결혼했다. 10년간 세 자녀를 낳아 길렀고 캐나다의 조그만 마을에 정착했다. 남편은 건축 사업을 했고 나는 전업 주부로서 가끔 남편 일을 도왔다. 우리는 주말이면 친구들을 초대해 항상 술자리를 벌였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음주가 내 삶에서 그토록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싫었으나 우리의 사교 활동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다.

1969년, 내 삶이 정체되었다는 것과, 내 자녀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술자리가 끝난 밤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제 삶을 바꾸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나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이후로 그 약속을 지켜 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잊지 못하는 기도 중 첫 번째이며, 응답은 곧바로 왔다. 시누이의 딸이 후기 성도 친구와 함께 초등학교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은 것이다. 교회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시누이는 나에게 교회 잡지를 보내 주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내가 그 첫 번째 기도를 드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그

잡지가 도착했다. 당시에는 물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잡지에 담긴 말씀이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었다. 나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고 결국 답을 찾았다. 나는 내 삶을 정말 바꾸었고 1970년 6월 19일에 침례를 받았다.

남편은 내 바람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예전의 삶을 좋아해서 그대로 살았다. 물론 그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 가장이었지만,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35년 동안 나는 혼자였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키웠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자녀들은 나와 같이 교회에 가기보다는 아빠와 함께 일요일에 보트를 타러 가려 했다. 나는 절망했다. 1975년 어느 날, 스테이크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교회가 가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말씀드렸다. 회장님은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했다. “자매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것이 내가 잊지 못할 두 번째 기도이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고리라는 느낌을 응답으로 받았다. 내가 그 고리를 끊어 버린다면 모두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충실하게 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몇 가지 사건들



##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이상적인 가족을 통하여 이 생의 근본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상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주님에 대한 순종과 신앙을 통하여 가능한 한 그것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코 그러한 목적을 단념하지 마십시오. …… 현재, 의로운 동반자와 성전에서 인봉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인내를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형제들은 비회원 아버지와 저활동인 어머니가 성전에서 인봉되기까지 30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그 축복을 휘장 이편에서 얻게 될지 저편에서 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쪽.

덕분에 신앙을 지켰고, 남편이 언젠가 복음을 다시 생각해 줄 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

- 나는 남편을 항상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고 내조하며 충실한 아내가 되고자 했다.
- 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복음의 동반자가 되었다. 복음 표준대로 살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했고, 나는 나의 구주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정기적으로 경전과 리아호나를 비롯해, 손에 닿는 교회 출판물들을 다 읽었다. 특히 제3니파이 13장 33절과 교리와 성약 75편 11절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 그 구절들에서 감동을 느꼈다. 이 구절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할 때를 기다리는 나에게 힘과 인내심을 주었다.
- 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충실하게 교회에 나갔다. 현재는 모두가 활동 회원이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났을 때도 나는 계속 혼자서 교회에 나갔다.

- 우리는 남편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가정의 밤을 했다. 내가 저녁 식사 시간에 주제를 언급하면 우리 가족은 다 함께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나는 언제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다.
- 나는 신권 축복을 요청하여 더욱 힘을 받았다.
- 나는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를 구했다.
- 나는 교회 친구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 나는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나는 엔다우먼트를 받으면 남편과 나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결국엔 엔다우먼트가 내게 최선의 결정임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내 결정을 지지해 주어서 나는 행복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에는 내가 성전에 못 가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며 화를 내는 일도 없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할 때면, 나는 종종 남편의 이름을 기도 명부에 적어냈다.

나는 계속해서 충실한 회원으로 살았다. 남편이 듣지 않으려 해도 가볍게 복음을 나눌 방법을 찾았다. 나는 성신이 내게 해야 할 말과 복음을 나눌 올바른 방법과 시기를 영감을 통해 알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나는 남편에 대한 나의 충실함과 헌신 때문에 남편이 때때로 성신의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선교사 토론을 듣는 것에 몇 번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옛 생활로 곧 돌아갔고, 그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같이 낙담하는 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켜봐 주셨고 다른 축복과 함께 내가 얻지 못한 축복을 보충해 주셨다. 그동안 나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가 남편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았다.

남편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욕설을 멈추고 술을 끊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나를 잘 대해 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기도했다.

2005년 4월, 잊을 수 없는 세 번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었다. 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었고, 다소 절망하는 기분도 느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었다. 남편이 7월 9일에 침례 받았으니까 아마도 그때가 적절한 때였던 것 같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믿지 않는 심령을 믿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이 35년간 내가 드린 수많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음을 안다. 그분의 응답 덕분에 이제는 변화되어 나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자와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그날을 위해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구주가 하신 “내게 오라”(엘마서 5:34)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현재 받은 축복을 향유하며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간증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분의 시간표는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안다.

## 남편의 이야기

**35**년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 복음에 대해 토론했다. 아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었고 현명하게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문경과 리아호나 잡지를 놓아두기도 했다. 물론 나는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아내는 여러 번 선교사들을 초대했고 두세 쌍의 선교사들과 함께 토론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침례의 물가로 갈 수 없었던가?

나는 언제나 핑계거리를 댔다.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보였다. 나는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아내에게 “일이 한가해져 여유가 생기면 물문경을 읽어 보겠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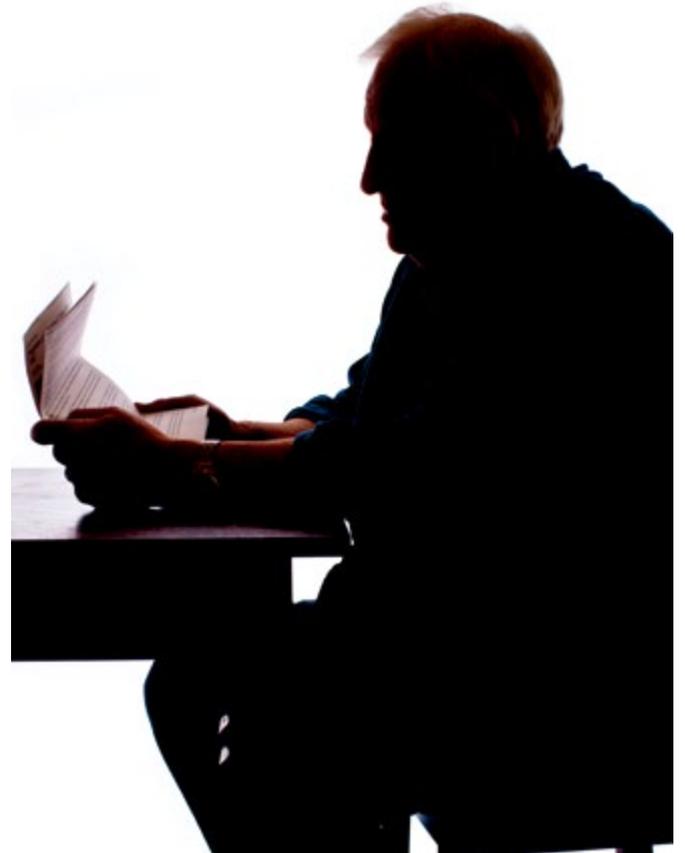
하지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게다가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내가 교회 회원이 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좀 심각한 것이었는데 바로 죄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모사이야서 3:19)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았고 그저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구주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마태복음 12:30)라고 말씀하셨다. 예전 생활 방식 때문에 나는 내가 그분을 반대하는 자였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변화해야 했다.

나는 복음과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대로 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파티와

*딸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더 이상의 변명거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음을 그만두었다. 나는 변화하자 영을 좀 더 자주 느끼게 되었다. 물론 있어야 할 곳에 여전히 있지 않았고, 쓰는 말은 곱지 않았으며, 고쳐야 할 예전 습관들이 있었지만, 나는 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를 하나 받았다. 딸 린다가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꽤 여러 구절에 표시해 둔 몰몬경과 성경이 들어 있었다. 린다는 또 편지를 한 통 썼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나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린다는 이렇게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된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린다는 몇 가지 구절을 소개했는데, 그 일로 나는 기도와 경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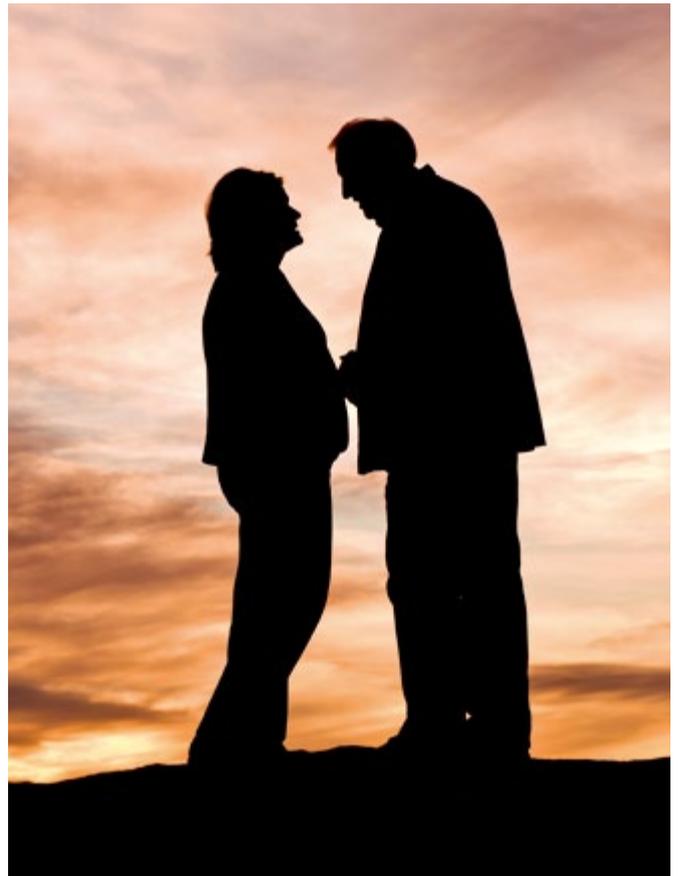
딸아이는 “내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경전에서 그분들에 관한 것을 읽는 길뿐이었어요.”라고 썼다.

린다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더는 미루지 마세요. 아빠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예요. 이것이야말로 참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는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바쁜 일도 줄어들어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린다가 나를 위해 개괄해서 소개한 경전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몰몬경 전체를 읽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물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았다.

당시 아내가 나에게 함께 교회에 가서 자기 옆에 앉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나는 성찬식에 참석했다. 아내는 나더러 교리와 성약을 읽어 보라고 했다. 그렇게 해 보니 교리와 성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 아내의 도움으로 몰몬경을 읽었고, 경전 구절이 내 삶에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수많은 기도를 통해 내 안에는 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의 내면을 바꾸어 놓았을까? 성신과 경전 지식 때문이 아닐까? 바로 그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용기가 생겼다. 그 죄 때문에 그 오랜



복음 속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세월 동안 나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3일 동안 침대에 누워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주셨다.

아들 케빈이 2005년 7월 9일에 내게 침례를 주었다. 수십 년 전에 아내를 가르쳤던 선교사 중 한 명이 함께 참석했다. 2년 후 나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에서 가족과 함께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다.

지난 7년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마침내 우리 가족의 축복사이자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했고 아내와 자녀, 손자 손녀 아홉과 복음을 함께 나눈다. 가족의 단합은 영적으로 모두를 강화시켰다. 사위가 교회에 들어왔고, 손자 손녀 중 4명이 선교 사업을 마쳤거나 지금 하고 있다. 교회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기적과도 같다. 나는 복음이 이처럼 커다란 행복과 성장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이 두 번째 기회에 참으로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보상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

# 희망을 품고

## 미래를 바라보라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과 그분의 왕국, 가족을 맨 앞에 두면, 우리에게서 현재와 미래의 시련에 맞서는 데 필요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20** 대 중반이었을 때, 아날도 텔레스 그릴로 형제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퇴직한 기술자였던 62세의 그릴로 형제는 포르투갈 오에이라스 지방부 회장단 보좌로 부름 받았으며 우리는 몇 년간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분이 지닌 지혜와 경험에서 당시 젊은 신권 지도자였던 저는 매우 귀중한 조언과 식견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타고난 낙천주의자였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밝은 면을 보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데, 특히 저에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어떤 힘든 시련을 겪어 왔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기술을 전공한 그릴로 형제님은 포르투갈 국립 농촌진흥청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으며 이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포르투갈 식민지 중 한 곳에 가서 '면화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그분은 그 나라에 있는 국제적인 대규모 은행의 고위 임원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약 30년을 보내면서 그분은 가족을



아날도 텔레스 그릴로 형제는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을 그대로 남긴 채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분명한 원칙과 가족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굳건히 닳을 내리고 있었다.(오른쪽 사진: 1956년에 찍음, 위 사진: 1960년에 친구가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주었던 자동차와 함께 찍음)



훌륭하게 양육했으며, 분쟁과 전쟁이란 비극 때문에 포르투갈로 급히 귀국하기 전까지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해 마지 않던 그 나라에 전쟁이 남긴 참상을 목도한 그릴로 형제님과 가족은 일구어 놓은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나야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전쟁이 점차 평화와 안정을 모두 휘저어 생긴 혼란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릴로 형제님은 한 친구를 구해 내기 위해 독일에서 구입한 값비싼 자동차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차 덕분에 친구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릴로 형제님은 열심히 일하여 부를 얻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분명한 원칙과 가족에 대한 사랑 안에 굳건히 닳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52세 나이로 포르투갈에 돌아온 그릴로 형제님은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삶이 남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그토록 긍정적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자신감이 충만했을까요?

그릴로 형제님은 포르투갈에서 교회가 초창기일 때 개종했으며 그 나라에서 단단한 기둥이자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왕복 4,500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가족을 스위스 성전으로 몇 번이고 데려갈 정도로 신앙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봉사하면서 그릴로 형제님 내외는 자녀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릴로 형제님은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비롯된 것입니다.

신약전서는 위대한 희망찬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sup>1</sup> 계시자 요한 같은 선지자들은 미래에 닥칠 일들을 보았으며 의 안에서 끝까지 견딜 때 얻는 축복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한은 일곱 인, 즉 일곱 시대를 보았고 어떻게 사탄이 항상 의로운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인지를 묘사했습니다.(요한계시록 5:1~5; 6 참조) 그렇지만 요한은 사탄이 묶이며 그리스도가 승리 가운데 통치하시게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요한계시록 19:1~9; 20:1~11 참조) 마지막으로 그는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 의로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임을 보았습니다.(요한계시록 20:12~15 참조)

오늘날 우리가 받은 커다란 과제 중 하나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문을 펴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뉴스를 듣다 보면 단 몇 분만에 날마다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와 자연재해 소식을 듣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악을 정복하시고, 진리가 어떻게 거짓을 이길 것인지에 대한 경전상의 약속을 이해하면, 희망과 낙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 위기를 목도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일들은 먼 발치서 구경하는 일이 아닌,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유를 잃었다 하여 슬퍼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누리는 단순하면서도 소중한 기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날도 텔레스 그릴로 형제님이 보이신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나 타인을 위한 봉사와 같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 크게 가치 있을”(니파이후서 25:8) 일들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정복당할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모두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 신권 권세, 성전, 교회 회원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승리자”(교리와 성약 10:5)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완벽한 속죄 희생을 치르셨으므로 우리 모두 영생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모로나이서 7:41 참조)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왕국, 가족을 맨 앞에 둘 때,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시련에 맞서는 데 필요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

주

1. 요한계시록 19~22장 참조; 또한 신약전서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 46과(1997) 참조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 신권 권세, 성전, 교회 회원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책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군요

**몇** 년 전에 구약전서를 읽은 후, 나는 그 가르침, 특히 이사야의 가르침이 흥미로웠다. 그래서 계속 구약전서를 공부했다. 2010년, 나는 비행기 좌석에서 우연히도 유대인 랍비와 나란히 앉게 되었다. 나는 이사야에 나오는 몇 구절에 대해 질문하면서 말을 걸었다. 대화를 더 나누면서 우리는 구약전서에 잘 나타나는 신권 권세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그 랍비는 우리 교회 회원들이 어디서 신권 권세를 받는지 물어보았다. 옹다구나 싶어 나는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과 아론 신권,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몰몬경 번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으로서 갖는 그 책의 목적에 관해 토론했다.

랍비는 관심을 보였다. 그는 조셉이 몇 살 때 첫 번째 시현을 보았는지 물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사무엘과 똑같이 14세였다고 답하자 그는 많은 선지자가 청소년 시기에 부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셉 스미스를 10대일 때 부르셨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경전을 펼쳐 그와 함께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을

**그 랍비는 우리 교회 회원들이 어디서 신권 권세를 받는지 물어보았다. 옹다구나 싶어 나는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과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읽었다. 나는 랍비에게 증인 중 몇 명은 교회를 떠났으나 그 누구도 금판을 본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천사와 금판을 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었죠?”라고 그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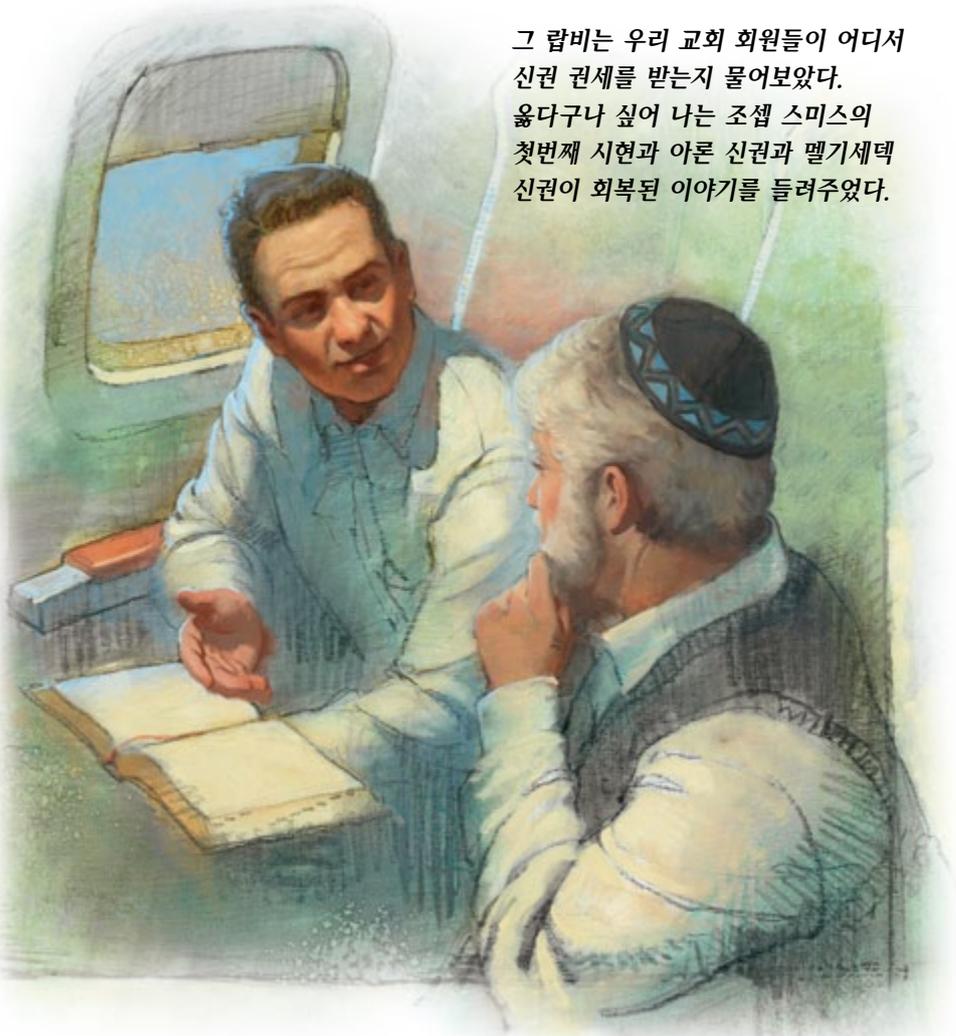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라고 나는 답했다.

그는 니파이전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멈추고서는 “이 책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군요.”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왜 몰몬경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지 설명했다. 나는 한 이스라엘 지파가 몰몬경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나는 유다와 요셉의 막대기를 언급한 에스겔 37장 15~20절을 인용했다. 우리는 유다의 막대기가 성경을 뜻하는 것에 동의했고 나는 요셉의 막대기가 몰몬경이라고 설명했다.

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랍비는 몰몬경 한 권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내 간증을 적어 몰몬경을 보내 주었다. 구약전서를 공부했기에 경전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과, 내 새로운 랍비 친구에게 간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

더크 펠프리먼, 미국 유타



## 먼저 기도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과 의견이 부딪혀서 교회를 거의 떠날 뻔했다. 나는 그분이 옳지 않은 뭔가를 했다고 느꼈다. 그분은 응당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방법과는 다르게 행동하셨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아내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은 채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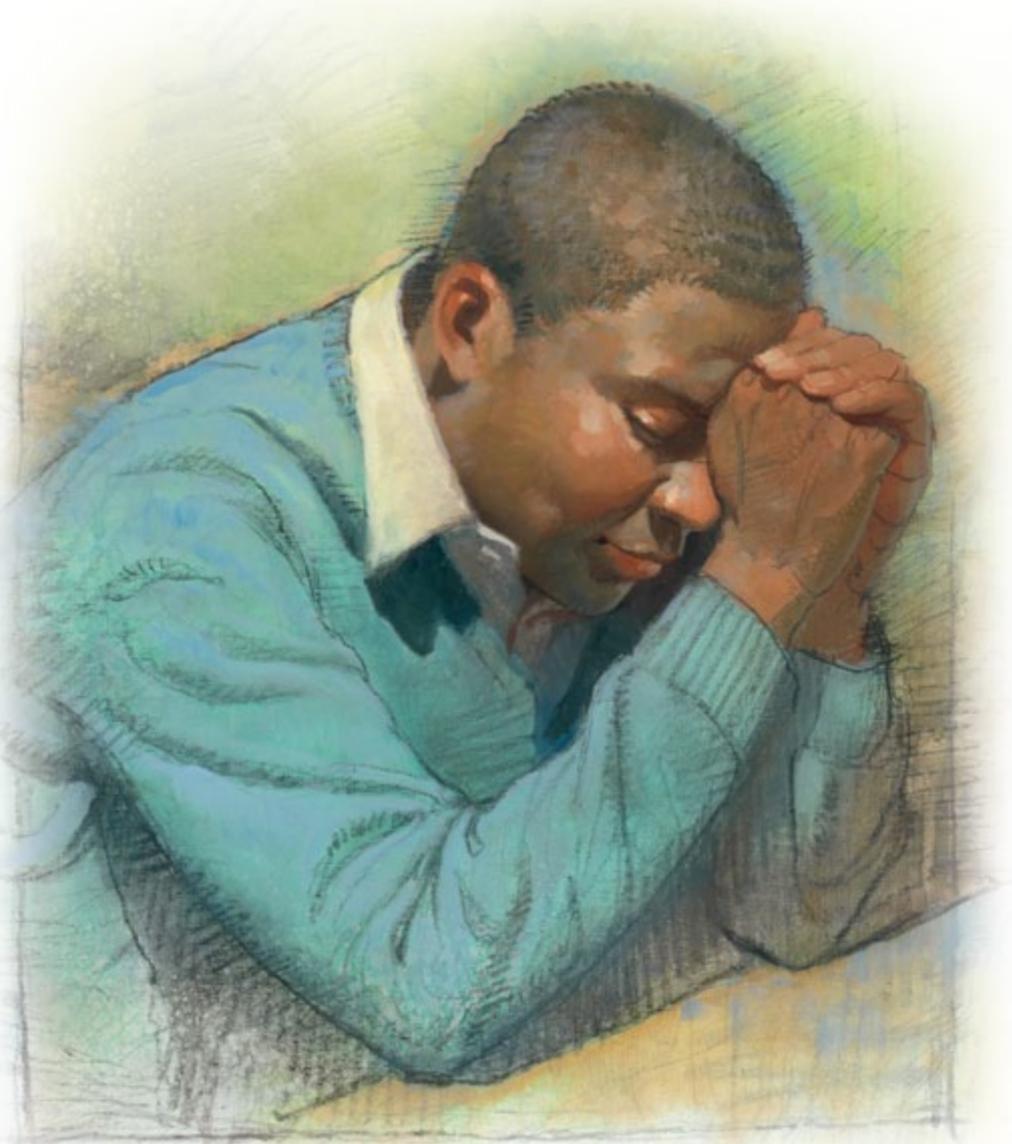
아내가 옳았다. 한동안 기도한 후에 다음과 같은 속삭임이 내게 직접,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느니라.”

그날 밤 나는 꿈을 꿔다. 꿈 속에서 할아버지는 내가 지도자와 싸운다고 꾸짖으셨다. 꿈에서 깬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렸다. 그분은 기쁘게 사과를 받아 주셨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곧 나는 교회에 다시 나갔다. 2주 후, 나는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나는 화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왜 스테이크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곧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알았다. 아부자에서 일한 지 2개월이 되자 나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나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시기 전에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간증이 더 굳건해졌다. 이제



**한동안 기도한 후에 다음과 같은 속삭임이 내게 직접,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느니라.”**

나는 지도자의 권고에 귀 기울이려고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분은 누구를 부르시더라도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sup>1</sup>

지도자들도 사람이다. 영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나는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지도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종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마틴스 엔이체, 나이지리아

주  
1. 토마스 에스 문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참조.



간증 시간에 간증을 나눌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자매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 간증을 나누실 겁니까?

**최** 근에 나는 다른 주에서 성찬식에 참석하며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있다. 나는 옆에 앉은 형제에게 간증 시간에 간증을 나눌 것인지 물으며 말을 붙였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자매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아뇨, 아마 안 할 거예요.”라고 대답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교회는 참되고 복음도 참되죠.”

나는 우리가 나누는 짧은 대화를 곧 잊어버렸다. 간증을 나눌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짧게 간증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제가 간증하려고 일어났을 때, 그는 복음과 복음을 통해 얻는 행복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저 방금 나와 나누는 대화를 소개하며 교회와 복음이 참되다고 짧막하게 얘기한 내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나는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간증을 나눌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와 교류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다 해도, 우리는 복음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나는 그날 연단에서 간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간증을 나누었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제와 그의 간증을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

라리나 힉슨, 미국 인디애나

## 예수님 무릎에 앉고 싶어요

**경** 찰관이 내 손자를 고속도로에서 발견하여 데려왔을 때 그 아이는 고작 네 살이었다. 경찰은 손자가 8킬로미터 떨어진 할머니 댁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아이가 불행한 가정에서 달아나 나에게 오려고 한 적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 이후 몇 달간 나는 손자와 그 아이보다 더 어린 손녀 둘을 키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나는 복음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했다.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마침내 내 관심사를 추구할 권리가 돌아왔다고 느꼈다. 나는 남편이 은퇴하면 같이 선교 사업을 나갈 목표를 소중히 여겨 왔다. 그런데 다시 학교에 입학할 나이도 안 된 아이들과 장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엄청나게 많은 빨래를 하고, 그 아이들이 십대가 될 때까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 손자는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냈고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 애를 안고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곁에는 구주의 그림이 그려진 벽걸이 달력이 있었고, 손자와 함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손자는 갈색 머리인 작은 소녀를 무릎에 앉히시고 돌로 된 출입구에

앉아 계신 구주의 그림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구주와 소녀가 그려진 그림에서 평화를 느꼈다. 손자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소녀를 가리키며 자기 여동생 이름을 불렀다.

“케이티가 어떻게 예수님의 무릎에 앉을 수 있죠?”라고 묻더니 “저도 앉을래요.”라고 말했다.

“얘야, 지금 예수님의 무릎에 앉을 수는 없지만 할머니 무릎에 앉을 수는 있지 않니.”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할머니를 주셔서 사랑해 주고, 안아 주며, 필요할 때 돌봐 줄 수도

**화가 난 손자를 안고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있는 거란다.”

불현듯 나는 구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랑스러운 세 아이들의 미래를 애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짐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자 놀라운 축복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한 자비에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그 일은 내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축복할 것이다. ■

익명



# 최선책이 실패할 때

스테파니 제이 번스

미래를 계획하는 일은 청년  
성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할까?

**한** 국에 사는 정성은 자매는 교원  
임용고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유타 주에 사는 티나  
로퍼는 경력을 쌓게 되리라 기대했던  
직장을 잃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사는 토드 스클렌스키는 결혼하라는  
영적인 확신을 받았지만 약혼을  
취소했다. 이탈리아에 있는 알리시아  
마조라리(가명)는 완벽하게 보였던  
관계를 청산했다.

그 어느 누구도 “차선책”에 기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다른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린다. 때때로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게  
한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주고 경험을 하게 해 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된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 이력서를 꾸미기보다는 인격을 함양하자

정 자매는 평생 꿈이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것,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을 언제나 성취할 수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술회했다. 하지만 교원  
임용고사에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시험에 떨어지자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티나는 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을  
때만 해도 걱정하지 않았다. 새  
회사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새 업무를  
신나게 시작하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나 몇 달  
후 회사에서 해고 당했을 때 티나는  
“상실감, 당혹감, 슬픔,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정 자매와 티나는 이력서를 꾸미는  
데에만 힘쓰기보다는 인격을 함양하는  
데에도 집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모두 복음 공부와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제가 인내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맞서도록 도운 훌륭한  
친구였어요.”라고 정 자매는 말한다.  
“그분은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때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기꺼이 기다렸죠.”

“저는 바울의 모범에서 뭔가를  
배웠죠.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순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티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가  
바로 관점을 바꾸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저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준 것은 제 직장  
지위였는데 이제는 사라져 버렸죠.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성스러운 잠재력이 있다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런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정 자매와 티나는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일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하면서 얻은 열매는 감미로웠다고 인정했다. 정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시험에 떨어진 다음 해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죠. 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 어린 의도로 사람들을 보살펴야겠다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물론경에 나오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보인 모범을 보면서 티나는 주께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한 단계 도약하게 하셔서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주님의 계획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파이인들이 칼을 쓰지 않고서도 레이맨인 형제들을 구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더 큰 신앙이 필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면 성공하리라는 약속도 받았지요.(앨마서 26:27 참조) 인내는 저에게 힘든 시련이에요. 저에 대한 계획 전체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를 위해 그분이 정하신 시점이 언제나 최상임을 깨달았지요.”

####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명을 지키고

선교 사업을 마친 토드의 미래는 밝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훌륭한 자매도 만났다. 몇 달간 구애를 하고 영적인 확신을 얻은 토드는 청혼했고 그녀는 승낙했다. 그들은 여름이 끝날 무렵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위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작별인사를 한 뒤 3주가 지나자 그녀가 파혼을 선언했어요.”라고 토드는 회상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만으로는 제 기분을 표현하지 못해요. 머릿속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죠. 주님의 집에서 확신을 받았는데도 우리 관계는 끝나 버렸어요. 제 간증이 이토록 힘겨운 시험을 받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파혼 후 몇 년간은 실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확신이라는 느낌을 마냥 신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했고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알레시아 역시 한 청년과 자신이 하늘에서 정해 준 인연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연애했어요. 모든 연인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헤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알레시아의 남자친구가 선교 사업을 떠났을 때, 어려움이 닥쳤는데, 알레시아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그가 떠나자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잘 알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으며, 또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여러 번 안주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지요. 저는 마치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장밋빛으로 변하는 동화 속에서 산 셈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에도 알레시아는 남자친구가 귀환하면 다시 행복하게 만나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귀환한 후 둘은 잠시 더 사귀다가 결국 헤어졌다. “제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라고 알레시아는 말한다.

각각의 경험에서 토드와 알레시아는 결국 자신의 삶에 핵심적인 관계가 있던 사람이 바뀌었지만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맞이 되어 주셨다.

“제가 왜 누군가와 결혼하라는 확신을 받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하지 못했잖아요.”라고 토드는 회상한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주님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면 무엇이든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할 생각이었습니다.”

알레시아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 필요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지 결정할 순간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대충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저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걸으러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찬란한 경험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야지, 쓸쓸한 것을 얻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야 할 바를 배우고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미래를 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18쪽.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며**

예기치 않았던 실패를 겪은 후 이 네 청년 성인들은 용기를 내어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장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커졌음을 알게 되었다.

정 자매는 교원 임용시험에 떨어진 후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려웠음을 기억한다. 그렇지만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저는 진짜 실패란 과거에 연연하며 뭔가 새롭게 해 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계속 슬퍼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를 배움을 얻는 기회로 탈바꿈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총괄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제 능력이 향상되고 심오해졌으며,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 자매는 그 이후로 교원 임용시험에 다시 도전하여 통과했으며 이제는 “매일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는 행복한 교사”가 되었다.

티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에게는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저는 학교에 복학했고 예술과 기술 쪽을 공부했어요. 그 분야는 제가 몸담고 싶어하는 분야지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는 못했었죠.”라고 설명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더 나은 다른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토드는 6년간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했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고 애썼다. 정말 연모하는 여성을 만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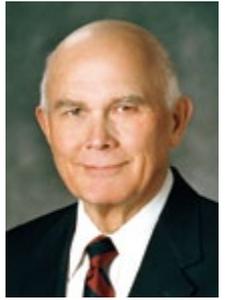
때엔 과거에 들었던 의구심을 떨쳐 버리고 장래 희망이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 “6년 동안 품었던 의구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비록 예전에는 주님께 화가 났었지만 저는 주님과 그분의 속삭임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는 결국 새로운 인연을 만나 성전 결혼을 했다.

“영의 느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까지 것처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왜 주께서는 제 아내와 같이 정말 훌륭한 여성을 내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일을 곱씹으며 토드는 말한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기다리시지만 언제나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알레시아는 주님께 자신을 다시금 헌납함으로써 간증을 깊이 키웠다.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와 닿았고 제가 맺은 성약과 더 깊이 결속하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론에 그치거나 책에서 읽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무언가에 머무르는 경우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여정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더라도, 영생에 이르는 최종 도착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계획하신 곳이다.(모세서 1:39 참조) 사람들은 “차선책”에서 “최선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보이드 케이 패커, “이들 중 지극히 작은자”,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6~88쪽; 로버트 디 헤일즈,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1~74쪽; 앤 엠 딘,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14~116쪽을 참조한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권 축복의 중요성

신권 축복은 영적인 것을 다스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신** 권 축복을 할 때 주님의 좋은 성신에 감화되어 축복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권능이 임하도록 신권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축복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열쇠가 있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통해 부여됩니다.(교리와 성약 107:18, 67 참조)

## 신권 축복의 예

신권 축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신권 축복은 그 축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요청할 때에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병자 축복은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야고보서 5:14~15; 마가복음 6:13; 교리와 성약 24:13~14; 42:43~48; 66:9 참조) 축복사의 축복은 성임된 축복사가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도가 필요하다면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 축복은 자녀가 학교, 군 복무 또는 장기 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주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위로 또는 권고의 축복이라 불립니다. 그러한 축복은 대개 아버지나 남편, 또는 가족 중 장로인 사람이 줍니다. 그때 받은 축복은 축복받는 사람이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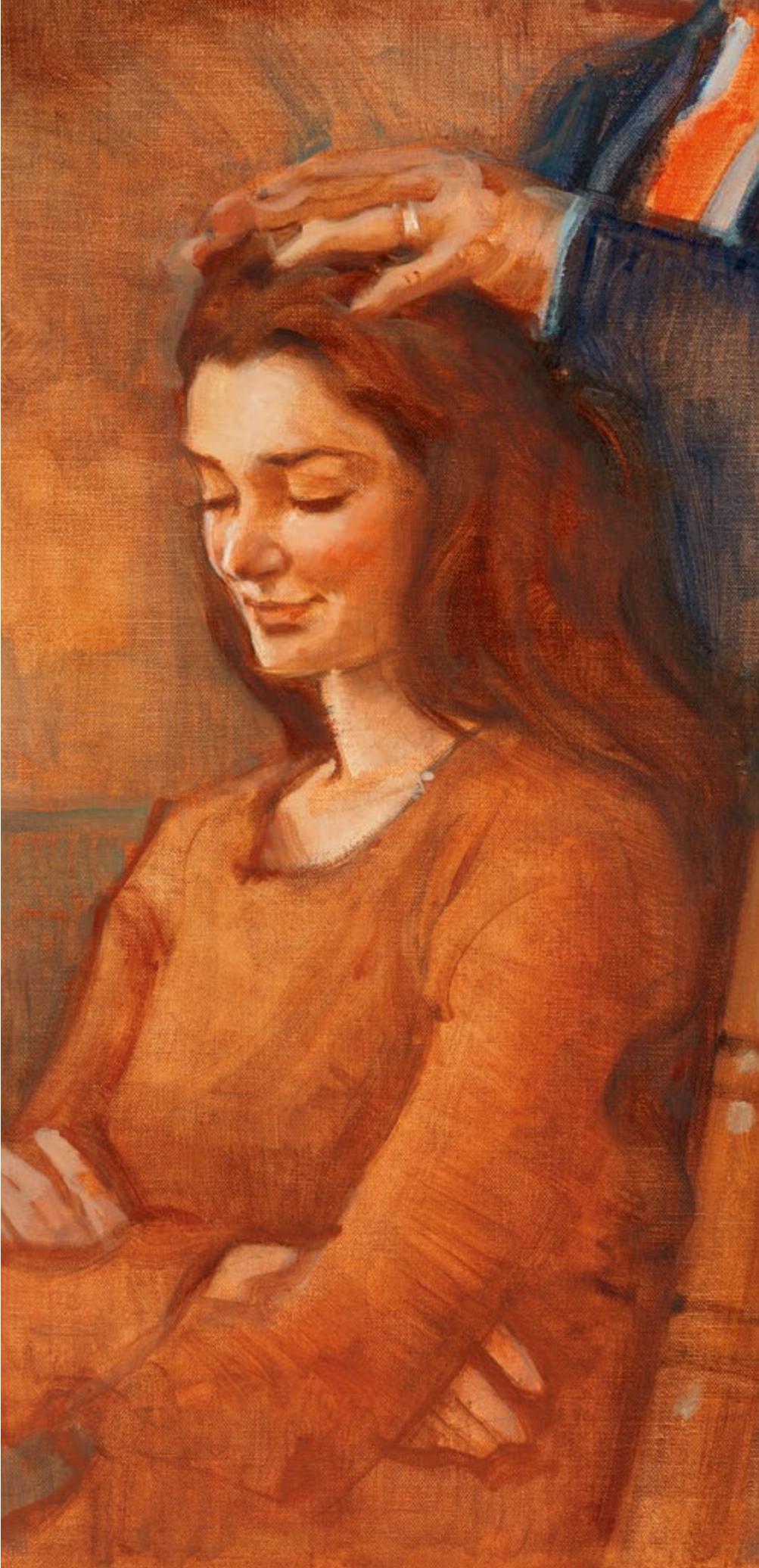
신권 축복은 신권 성임 또는 교회에서 부름을 주기 위해 형제나 자매를 성별할 때에도 주어집니다. 가장 빈번하게 집행되는 신권 축복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새로운 책무를 받게 될 때 신권 축복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는 즉시 위안을 느꼈으며, 그 축복은 오랫동안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 신권 축복의 중요성

신권 축복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입신출세하는 길을 찾으려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하는 젊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일 아버지가 나침반을 쥐어 준다면 그 젊은이는 그 길을 찾는 데 이 현세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친이 만일 돈을 준다면 젊은이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신권 축복은 영적인 것에 관해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지거나 무게를 짤 수는 없지만, 영생의 길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신권 축복을 주면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신성한 책임입니다. 주께서는 현대에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주님의 종이 성신에 감동되어 말씀할 때 그의 말은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교리와 성약 68:4) 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말이 단지 신권 소유자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견해를 나타낼 뿐 성신으로부터 감화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그 축복의 성취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대변하느냐 대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후손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와 같은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축복(교리와 성약 107:53~57 참조), 이삭의 축복(창세기 27:28~29, 39~40; 28:3~4; 히브리서 11:20 참조), 야곱의 축복(창세기 48:9~22; 49; 히브리서 11:21 참조), 리하이의 축복(니파이후서 1:28~32; 4장 참조) 등입니다.

현대에 주어진 계사에서, 교회 회원 중 부모인 사람들은 자녀를 “교회 …… 앞에” 데려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교리와 성약 20:70)하게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성찬식 모임에 데리고 와서 장로(보통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짓고 축복을 주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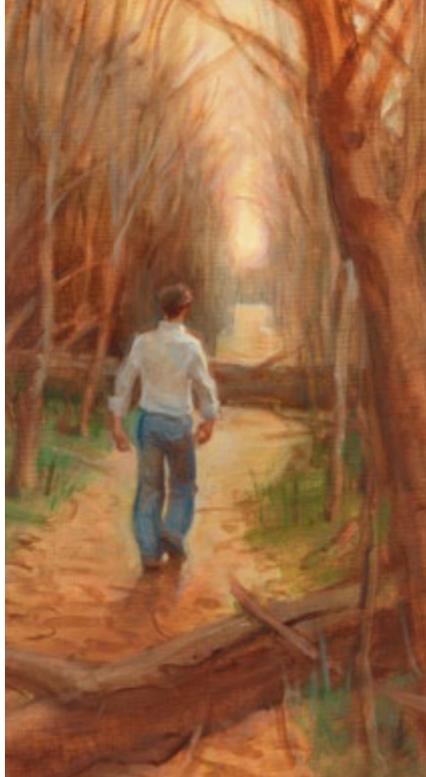
신권 축복은 머리에 손을 얹고 주는 축복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은 때때로 단체에도 주어집니다. 선지자 모세는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신명기 33:1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을 축복”했으며 또한 “회중”도 축복했습니다.<sup>1</sup>

신권 축복은 또한 장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국가들을 축복하고 헌납합니다. 성전과 예배당이 신권 축복을 통해 주께 헌납됩니다. 다른 건물들도 주님의 일을 할 목적으로 지어진다면 헌납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 성스러운 건물로 집을 헌납할 수 있습니다.”<sup>2</sup> 선교사와 다른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인 집에 신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앨마서 10:7~11; 교리와 성약 75:19 참조) 청남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 신권 축복과 관련된 경험

신권 축복의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백 년 전쯤, 사라 영 밴스는 산과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산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신권 지도자는 그녀가 “항상 옳은 일과 환자의 복리에 가장 훌륭한 일만을 하도록” 축복했습니다. 45년 동안, 사라는 한 명의 산모나 아이도 잃지 않고 약 1,500명의 아기를 받아



신권 축복은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인가가 늘 영감을 주었으며,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sup>3</sup>

1864년, 조셉 에이 영은 동부에서 교회 일을 수행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부친인 브리검 영 회장은 아들이 무사히 다녀오도록 아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탄 열차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기차 전체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탄 객차를 비롯해 제 좌석 한 자리 앞까지 완전히 찌그러졌지만 저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빠져나왔습니다.”<sup>4</sup>

신권 축복에 대해 말하다 보니 여러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자녀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게 축복을 부탁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영감에 찬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

신앙이 강화되었던 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제 아들은 취직 시험 때문에 걱정이 되었으나 아버지는 멀리 있었기에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가족 중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고모부에게 축복을 부탁했는데, 그런 아들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새로운 세대의 신앙에 긍지를 느낍니다. 저는 한 젊은 개종자가 자기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께 축복을 간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참으로 특별해서 저는 그를 축복하면서 제가 한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신권 축복을 구하십시오. ■

1987년 7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2:399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0. 11.
3. Leonard J. Arrington and Susan A. Madsen, *Sunbonnet Sisters: True Stories of Mormon Women and Frontier Life*(1984), 105 참조
4. Joseph A. Young, in *Letters of Brigham Young to His Sons*, ed. Dean C. Jessee(1974), 4.

# 간증

## 나누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제3니파이 18:24)



# 기도의 힘

폴 벤덴버그  
교회 잡지

필리핀 세부 섬에 사는 청소년들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왼쪽부터: 필리핀 세부 시티  
성전 앞에 모인 호세리토,  
조해나, 로사, 켄



**지** 구 상에 있는 수만 개의 섬 가운데 7,107개 섬이 모여 동남아시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룬다.

필리핀에는, 7,107개 섬이 있긴 하지만 썰물 때만 그렇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밀물이 들어오면 섬 일부는 물 아래로 잠겨 실제 섬은 7,100개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사는 청년 청년들은 자신이 압도되는 기분이 들 때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견디기 위해 어떻게 할까? 그들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다.

살다 보면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의지할 수 있으며, 그 지식에서 비롯된 희망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 자신감을 불러오는 기도

호세리토 비는 열두 살 때 구연동화 대회에 참가하라고 지명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생님은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앞에서 발표할 10쪽짜리 원고를 암기하라고 하셨다. 무대 공포증을 자주 느끼는 호세리토는 물론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일 것이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은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는 것이었죠.”라고 호세리토는 말한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원고 내용을 잊어버린다 해도 말이 끊기지 않고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게 새로운 대사가 떠오르게 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구약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 떠올랐어요. 잠언 3장 6절인데요. 이런 구절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호세리토는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한 주 내내 원고를 열심히 외웠고 날마다 기도도 무척 많이 했다. 마침내 구연동화 대회가 열리는 날이 왔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환영 인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호세리토는 여전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동화를 구연하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좌절감도 느끼고 겁도 났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호세리토는 원고를 잘 외웠을 뿐 아니라 아주 잘 발표하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호세리토는 말한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 힘을 북돋우는 기도

활동적인 후기 성도 가족 안에서 성장한 청년인 켄 지는 높은 표준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어려움이 생겼고 가족의 선한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는 때도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그런 기분이 더 심하게 들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저랑 정말 친했어요.”라고 켄은 말한다. “우리 우정은 돈독했죠. 문제는 친구들이 교회 표준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집에서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을 이끌어 줄 가족들이 없는 학교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 표준과 맞지 않은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리 시간이면 늘 공과에서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 꼭 저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켄은 자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혼자서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안 돼.’라고 말할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라고 켄은 설명한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자거나 유혹할 때마다 ‘안 돼.’라고 말하기가 점차 쉬워졌어요. 저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기도를 통해 ‘안 돼.’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행할 힘과 은사가 제게 있다고 느끼게 되었지요.”

켄은 이 경험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란 겸손의 표시란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 저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말 그대로 길 잃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은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4쪽.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교리와 성약 112:10 참조)라고 말했다.

###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

때때로 우리는 위안 혹은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을 축복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타니아 디는 그러한 때를 떠올린다. 타니아의 가족은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다음 주에 쓸 돈이 40페소(약 1달러)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저녁거리를 사거나 집에서 요리할 숯도 없었죠. 어머니는 필요한 것을 적은 목록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두 사려면 250페소가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저녁을 만들 숯을 사야 했어요.” 타니아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음 날 교회에 갈 버스 차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 교회에 갈 버스 차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정말 신앙이 강하신 어머니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걸 모두 사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가게에 가면서도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주머니에 20페소 지폐를 집어넣고서 타니아는 도움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기에, 기도를 드렸다.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 다 해결할 길을 찾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가게에 가보니 숯값이 5페소에서 20페소로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살까 말까 망설였어요.” 타니아는 말한다. “하지만 성신이 숯을 사라고 속삭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죠. 이제 20페소 밖에 안 남았는데 남동생 기저귀와 생수 등 살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다음 가게에 들렀는데 물건들이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 분명히 주머니에는 20페소만 남아 있었는데



### 동영상 시청하기

타니아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려면(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에 한함) [youth.lds.org](http://youth.lds.org)에 접속하여 Youth Theme, 2012에서 “Pure and Simple Faith” 동영상을 찾아본다.

20페소 지폐가 다섯 장이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가게 주인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말았어요.

결국,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교회에 갈 차비도 충분했죠. 집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고 특히 우리가 그분을 정말 필요로 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해 주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더라도 기도가 즉시, 혹은 원하는 방식대로 항상 응답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시간에 따라 응답된다.

필리핀 세부 섬에 사는 청소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거나 홀로 있을 때, 밀물 때나 썰물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

# 약속과 기도

파블로 미렐레스 베츠

**물** 문경에 대해 내가 경탄한 부분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기도 전에 벌써 물문경을 통해 영원히, 그리고 크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멕시코 쿠에르나바카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나는 이 커다란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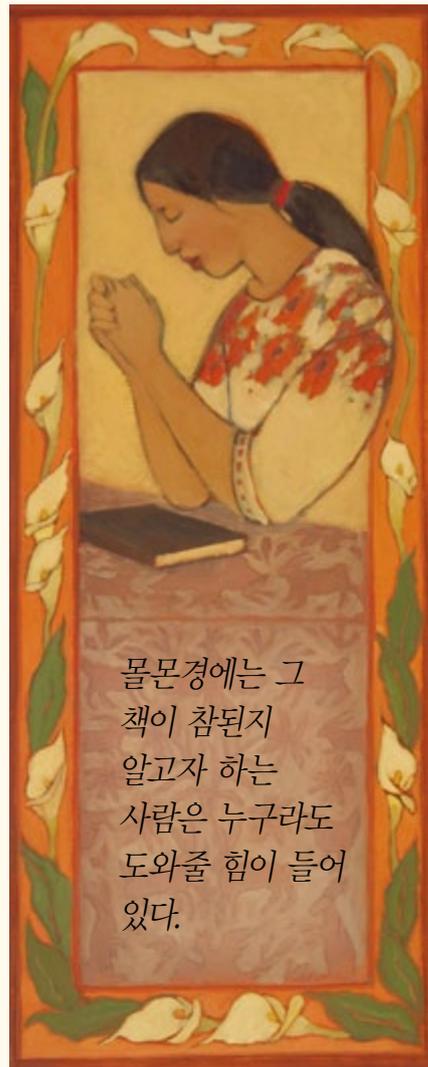
선교 사업을 나온 지 6개월째 되었을 때, 지부 회원 한 분이 동반자와 나에게 스무 살 된 여성과 그 가족을 가르치라고 소개해 주셨다. 그 젊은 여성은 후기 성도가 무엇을 믿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다. 물문경이 그 영혼의 질문에 답하리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물문경을 주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된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알려 주었다.

교회에 3주간 참석하면서 그 자매님은 우리와 계속 만났다. 우리는 자매님이 이미 중요한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물문경에 대해 기도를 해 본 것이다. 하루는 토론 시간에, 그 자매님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 자매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토론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고, 직접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문경이 참된지에 대해 여쭙었다. 기도 후 평화를 느낀 그녀는 물문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물문경을 읽으면서 영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 일을 되돌아보며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것을 느껴요. 제 삶에서 결코 채워질 것 같지 않던 빈 공간을 무언가가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느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죠. 또 저를 알고 계시며, 저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제 말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 자매님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때 마음속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나는 그때 내가 성스러운 곳에 있음을 알았다. 성신은 나에게 그녀의 말이 참됨을 확인해 주었다. 그 간증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도구로서 물문경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다. 우리가 물문경에



물문경에는 그 책이 참된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도와줄 힘이 들어 있다.

나오는 원리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바뀔 것이다.

나는 그 토론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 자매님은 우리에게 “물문경이 참됨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물었다.

“침례를 받아야죠.”라고 우리는 대답했다.

자매님의 대답은 간결했으나 자신의 간증이 단순하고 확고함을 보여 주었다. “그럼 침례를 받게요.”

물문경에는 행복과 평화를 찾게 하는 힘이 있다. 물문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마치 그 자매님이 구주의 모범을 따라 침례의 물가로 왔듯이 말이다. ■

# 순수한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엘리스 알렉산드리아 홈스

여러분의 간증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여**러분은 간증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일어나서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단상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간증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간증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간증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증은 확신이며 지식이자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간증”(앨마서 4:19)은 순수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 혹은 믿는 것에 대한 영적인 증거입니다.(교리와 성약 80:4 참조) 간증을 나눌 때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강력한 부분은 ‘안다, 믿는다, 간증한다.’입니다. 진정으로 “저는 물몬경이 참됨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감동을 전할 영을 불러올 힘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 만들어진 퍼즐 조각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0쪽.

## 시각을 넓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해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이해력은 퍼즐처럼 한 번에 한 조각씩만 옵니다. 각 조각이 따로 있을 때에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전체 그림과 관련시키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각 하나하나를 모으다 보면 전체 그림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각들을 충분히 모았을 때, 전체 그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경험을 돌아보면서 구주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단번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부드럽게,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득한 커다란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자 앞면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고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퍼즐 두 개가 서로 맞는다면 제대로 맞춰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증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얻게 되면 서로 다른 간증 조각들이 함께 맞춰지기 시작하여 복음에 관한 특정한 진리를 믿거나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지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알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으로 진심을 다해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 간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 때처럼 가족과 친구들은 여러분을 가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만의 퍼즐을 맞추고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부모님이나 친구의 신앙에 의존할 수도 있으나 좀 더 영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간증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간증을 키우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때 한 사람은 퍼즐 끝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색깔로 맞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듯이 우리 각자는 믿음과 경험을 통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간증을 쌓아 갑니다.

무언가에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 순수한 간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가장 어린이다운 간증이 가장 위대한 간증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마티아스 시, 아르헨티나

“저는 순수한 간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거든요.” —퀴아이드 에이치, 호주

“간증은 우리의 가장 큰 닻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강한 간증이 있다면 더 훌륭한 태도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인 브이, 미국 캘리포니아

“순수한 간증이란 스스로 발견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나누면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간증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매고메인 엠, 남아프리카

TESTIMONY



진심으로 기도하여 인도를 받고 진리를 찾으십시오. 종종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응답을 받으려면 눈과 마음을 늘 열어 두어야 합니다.

### 간증은 계속 자라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서는 완성된 퍼즐을 상자에서 꺼낼 수 없듯이 단번에 간증이 생기리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복음이 참됨을 알려면 조금씩 배워 나가야 합니다.

강한 간증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계속 노력할 때 성신이 그 노력을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의 간증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

# 제가 ..... 해야 합니까?

### 간증할 때 이야기나 경험을 나누어야만 합니까?

사람들은 간증할 때 종종 이야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것은 간증이 어떻게 커졌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간증이 아닙니다. 관련이 있는 짚막한 이야기는 요점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을 자라게 했는지, 또 그 경험에서 배운 복음 진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증이란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다거나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간증은 성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증거하심에 따라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2 참조) 훈계하거나 타이르거나 단순히 흥미로운 경험을 나누는 대신 진리를 확언할 때 성신은 우리 말이 참되다는 확인을 해 줍니다.”<sup>1</sup>

또한, 경험을 나눌 때는 주의하십시오. 죄, 회개, 성스러운 영적 경험 등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영감을 받지 않는 한 공식석상에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하라는 느낌을 받더라도 개괄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간증할 때 감사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간증할 때 감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는 않으나 이런 표현을 간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간증은 복음에 대해 영적으로 배운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간증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간증을 하면서 ‘저는 …… 에 대해 감사합니다.’ 혹은 ‘저는 …… 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겸손하고 진지하고 분명하게 ‘저는 …… 을 압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이 염려됩니다.”<sup>2</sup>

### 진실된 간증을 전하려면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을 표출해야 합니까?

영을 강하게 느낄 때나 간증할 때 울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을 느낄 때 모두가 감정 면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나눌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한 감정이나 마구

흘러내리는 눈물이 영의 임재하심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분명 주님의 영은 눈물을 포함하여 강한 감정적 느낌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외적인 나타남이 영의 임재하심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sup>3</sup>

### 간증이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간증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자신의 간증은 아직 미약하거나 나눌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나누면 자신에게 실로 얼마나 큰 간증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더 많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증을 얻기 전에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저에게 그런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가르쳐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간증은 전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찾기 위한 탐구 과정 어딘가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빛의 가장자리를 지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한두 발자국 앞까지만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sup>4</sup>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2. 엠 러셀 벨라드,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1쪽.
3. 하워드 더블유 헌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99쪽.
4.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18쪽.



# 관중을 향한 연극

역할을 바꾸겠다고 마음먹기까지 내 삶은 온통 연기에 불과했다.

브리트니 톰슨

**십** 대인 나에게 학교란 연기를 하는 곳과 다름없었다. 알다시피 영화에서는 악당이 매끄럽고 재치 있는 대사를 술술 내뱉으며 정말 세련되게 나오지 않는가?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다. 최고의 악당처럼 화면을 좌지우지하고 싶었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도덕적인 면에서 수준이 낮은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부적절한 말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을 놀릴 때 주위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좋았다.

나는 관객을 즐겁게 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알아냈다. 생물 시간에는 곤잘 아이들을 웃겼고, 배구부원들에게는 내가 파티광이라고 믿게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여학생이라는 나의 평판을 불식시켰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천사표라고 여기기를 바라지 않아!'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죄는 실제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이 교양 없는 태도쯤은 괜찮다고

한사코 나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짓이었다! 내 실제 삶은 내가 보아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더 유명해질수록 내가 맡은 배역이 더욱 싫어졌다.

어느 날, 친구 두 명이 자신의 믿음을 표방하는 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니퍼라는 착하고 다정다감한 운동선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학년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인기 있으며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제니퍼는 정말 다르더라. 나도 그 애처럼 좀 용감하게 우리 교회를 믿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사는 애는 제니퍼밖에 없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높은 표준을 갖고 있잖아!" 나를 훌륭한 본보기로 생각하지 않는 그 친구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러던 중, 나는 주인공으로서 극장 맨 앞줄에 앉아 내 삶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불현듯 들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보인 형편없는 내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어느 누가 나를 보고 "나도 그 아이처럼 용감하고 남다르게 되고 싶어."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이때까지의 내 모습이 정말 싫었다.

내 배역과 평판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물려고 한다. 나는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도 친구들을 웃길 수 있으며, 거친 농담이 오갈 때 비웃음을 받지 않고서도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어느 누구도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 '악당'이 될 필요는 없다. 나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었다. 내가 믿는 바 안에서 화평을 느끼는 편이 실제 내 모습을 숨기는 것보다 훨씬 더 멋졌으니깐! ■



# 친절한 속삭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누가복음 6:27)

데보라 무어  
실화에 근거함

“오 늘은 칼슨도 왔구나.”  
제임스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실 옆 복도에서 있는  
소년을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제임스는 앓,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칼슨이 청바지와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절대로  
제임스가 그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임스는 칼슨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도 압니다.

지난 주 학교에서 칼슨은 선생님께  
말대꾸를 해서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칼슨은 언제나 제임스의 옷차림을  
놀렸고 학교에서 가장 꼬마라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칼슨이 원 자매님께 소리치거나  
대들면 어떡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칼슨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아마 떨릴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원 자매님은 누가  
경전을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반원들과 함께 손을 들었지만  
칼슨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칼슨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제임스는  
놀랐습니다. 칼슨은 숙제를 해 오지

않고서도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칼슨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제임스는 새로운  
교회에 처음 가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원 자매님은 칼슨에게 자기  
경전을 건네셨습니다. 칼슨이 경전  
읽을 차례가 되자 제임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칼슨이 바닥에  
경전을 집어 던지거나 안 읽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칼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칼슨은 경전을 바라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후 제임스는  
칼슨이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임스가 칼슨을  
놀릴까요? 아니면 깔볼까요?  
여러분이 제임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쪽을 넘겨 보세요.

제임스는 칼슨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진실로.”

칼슨은 놀란 듯 보였으나 그 낱말을 따라서 말했고, 계속해서 그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막히면 제임스가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끝나자 칼슨은 제임스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이 일이 있는 후에,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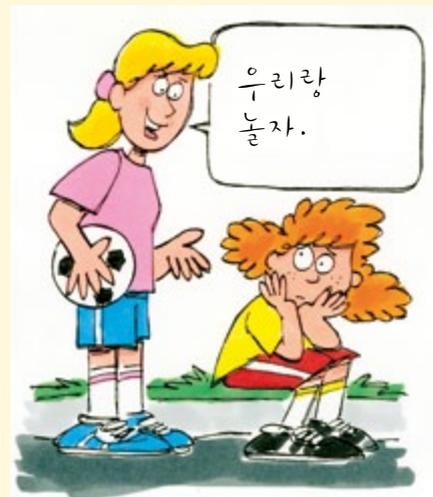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제임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느꼈습니다. 제임스는 자기를 늘 못살게 굴던 친구를 오히려 도와주었고, 어느 누구도 그 기분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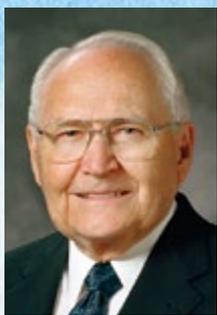


**하** 루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여자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애로 알려져 있었죠. 그 아이가 놀이 규칙을 바꾸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네가 하는 대로 놀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놀 거야.” 그 친구는 실망한 듯한 얼굴을 하며 가 버렸어요. 나중에 저는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 친구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해, 우리랑 놀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라고 말하자 그 친구는 “괜찮아” 하고 말해 주었어요. 그 친구와 제가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레이건 케이, 9세, 미국 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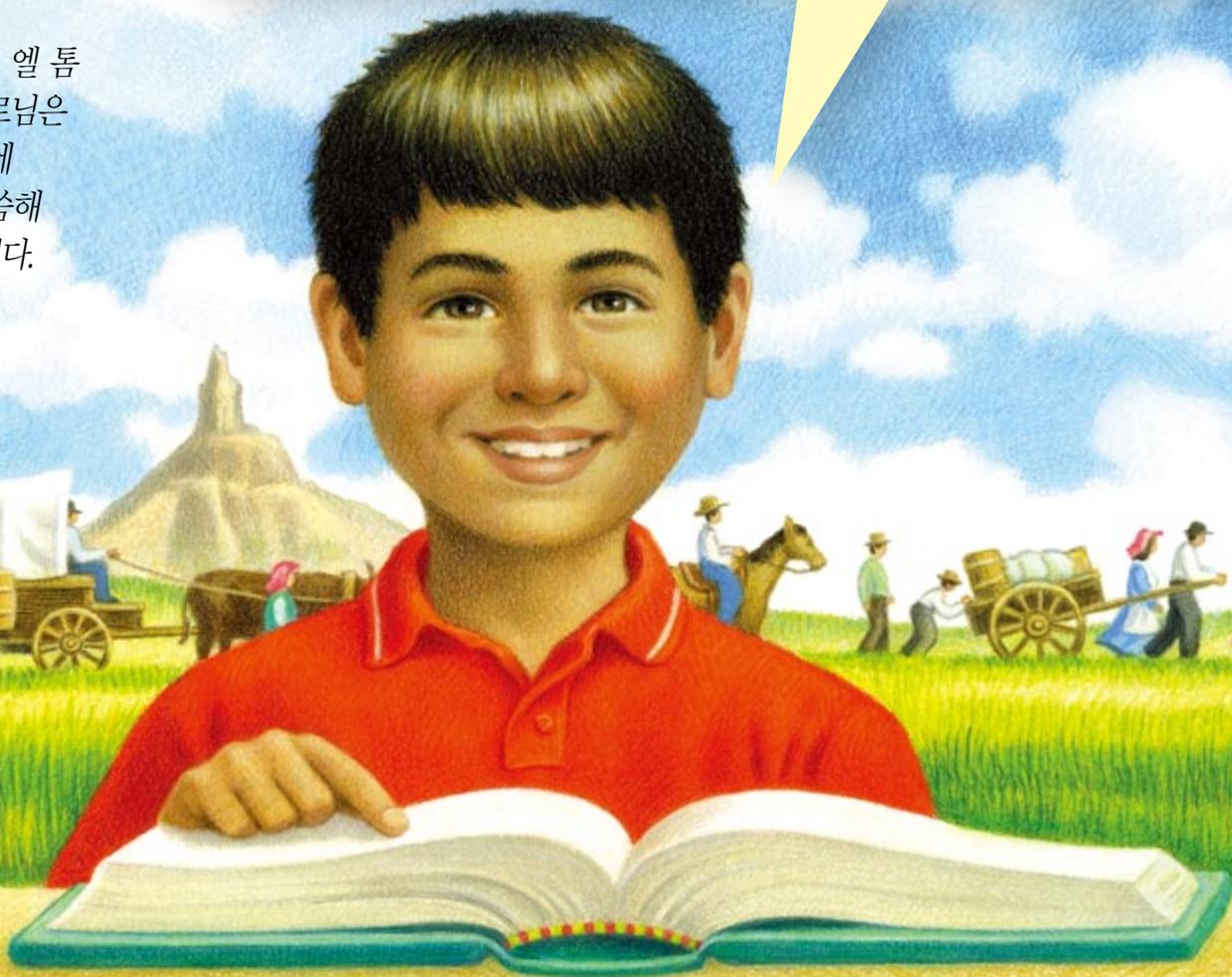
### 옳은 방법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초기 개척자들,  
그분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7월

24일에 우리는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한 개척자들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광야로 가는 여정에서 집,  
사업, 농장,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등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개척자들은 평원을 지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역경 앞에서도 늘 기운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초기 개척자들은 산기슭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 된 신앙, 용기,

창의성 등 고귀한 개척자들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

“미래를 대처하는 과거의 방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뜻 깊은 축하 행사”,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74쪽.

# 역사 만들기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쇼** 마와 에스테르, 카타 비는 궁전과 왕족이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과 건물이 가득한 유서 깊은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삽니다. 학교에서 부다페스트의 역사를 배우지만

이 어린이들은 또 다른 역사, 즉 교회 역사도 즐겁게 공부합니다.

일곱 살인 에스테르는 “조셉 스미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열 살 된 쇼마는 엘마 이세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처음엔 나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된 엘마 이야기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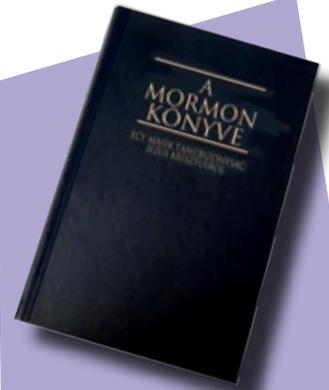
부다페스트에서 조셉 스미스나 엘마 이세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마와 에스테르, 그리고 다섯 살인 카타는 자신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옳은 것을 선택해 나간다면 더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진: 채드 이 패러스, 지도: 토머스 에스 차일드



에스테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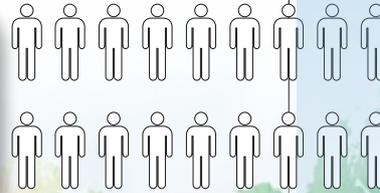


1991년에 헝가리어 모몬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쇼마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헝가리에는 교회 회원이  
대략 2,200명 당 한 명 꼴로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은 560km 정도 떨어진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입니다.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독일

헝가리

흑해

지중해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 나는 복음 원리에 따름으로써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선** 교 사업을 나가는데, 가족  
곁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모사이야 왕의 네 아들인 암몬, 아론,  
옴너, 힘나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엘마는 14년 동안이나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저마다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가슴에  
품은 소망을 따랐습니다. 그들과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했으며,  
그 복음을 니파이인에게 적대적인  
레이맨인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선교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마서 17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권능을 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금식과 기도 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처럼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노래와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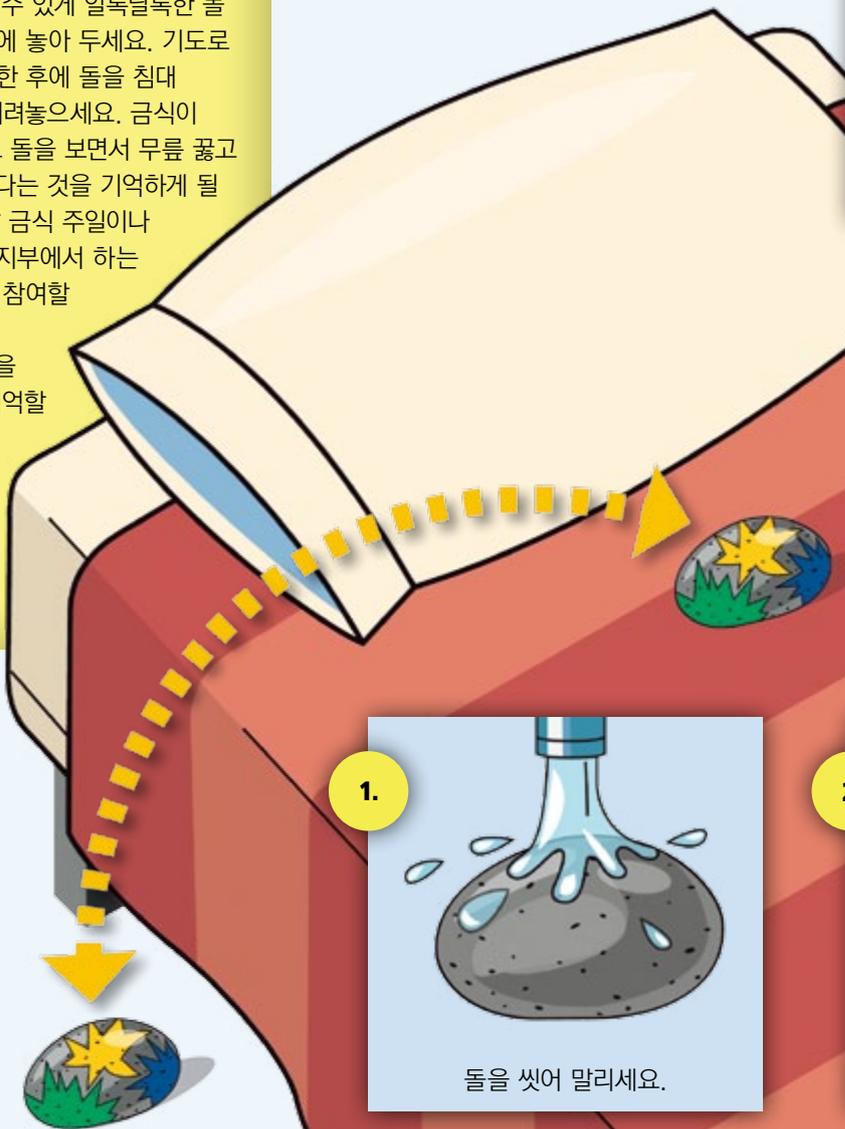
-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린이 노래책*, 132쪽
- 니파이전서 3:16

##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에 대해 금식하는지 기도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알록달록한 돌 하나를 침대에 놓아 두세요. 기도로 금식을 시작한 후에 돌을 침대 옆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금식이 끝났을 때 그 돌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매달 금식 주일이나 가족, 와드, 지부에서 하는 특별 금식에 참여할 때, 이 돌을 본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 필요한 재료

표면이 매끈한 돌이나 조약돌  
아크릴 물감 혹은 색깔 있는 매직펜  
붓



1.



돌을 씻어 말리세요.

2.



종이 접시나 페지에 물감을 조금 짜 놓습니다.

3.



붓이나 매직펜을 이용해서 돌을 꾸며 보세요. 돌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다른 무늬나 모양을 그려 보세요.

4.



색칠한 것이 완전히 마르면 돌을 침대에 놓아주세요.

## CTR 시간: 기도하기와 금식하기

금식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가족이 함께 토론해 보세요. 가족이 다 함께 금식할 때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 금식을 하는지 기도로 말씀드리면서 금식을 시작해 보세요.

# 토머스의 간증

“나 주는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러 계명의 참됨에 대한 증거를 너희에게 주노라.”(교리와 성약 67:4)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가**정의 밤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제각기 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휘를, 아빠는 공과를  
담당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기도,  
음악, 활동을 맡았는데 토머스만

예외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머스가  
간증을 나눌 차례였는데, 토머스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래된 일이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회  
찬송과 개회 기도가 끝났을 때, 토머스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네 차례란다.” 하고

토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머스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창 밖에  
있는 상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토머스 곁에 앉으시며 무슨  
일로 그러는지 물으셨습니다.

“간증이 뭘지 모르겠어요.” 토머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간증은 네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이나 믿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란다. 네가 얼마나 경전 읽기를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해도 돼. 경전은 언제나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잖아.”

하지만 토머스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 토머스를 쳐다보며 뭔가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토머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못하겠어요. 뭘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토머스의 팔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그날 밤, 늦은 시간에 토머스는 물몬경을 손에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을 읽을 때면 언제나 토머스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토머스는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보려 했었는데, 갈수록 분량이 정말 많은 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니파이전서 17장을 펼쳤습니다.

“이것도 길잖아!” 토머스는 중얼거렸습니다. 토머스는 잠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불을 막 끄려 하는데, 아빠께서 잘 자라는 인사를 하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인데, 아들?”

“사실 한 장이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지난 주 내내 경전을 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모두 다 읽었는데도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토머스, 네가 방금 뭘 했는지 아니?”

아빠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간증을 나눴단다!”

“제가요?” 토머스가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너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했잖니?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간증이지.”

토머스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증에 대해 배운 모든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토머스는 자신이 간증을 나누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토머스는 아빠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와! 제가 해냈어요!”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가정의 밤 시간에 간증을 나눠도 돼요? 제 차례는 아니지만,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로구나.” 아빠가 말씀했습니다.

아빠가 나가신 후 토머스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가족과 경전, 기도, 그밖에 여러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간증에 대해 생각하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머스는 간증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간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이 간증을 나눌 때, 간증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로버트 디 헤일츠,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22쪽.

# 간증이 자라나요

**간** 증은 아름다운 식물과 같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자라나고, 돌보고 보호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래 지시를 따라 간증이라는 이 식물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평화나 행복, 빛, 따뜻한 느낌을 가슴으로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아래에서 읽을 때마다 꽃에 색칠을 해 주세요.

-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 조셉 스미스는 지상에 이 복음을 회복했다.
-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다.
- 경전을 공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물과 햇빛을 받아 식물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선택을 하면 간증이 강해집니다. 간증을 강화할 몇 가지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간증이 커지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앞서기에 색칠을 해 보세요.

-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 가정의 밤이나 초등회 말씀 시간에 간증을 나눈다.
- 경전을 읽는다.
- 초등회와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운다.
- 간증을 일지에 적는다.
-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한다.
- 선지자들이 간증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읽어 보세요. (리아호나, 2009년 3월호에 실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참된 교회”를 먼저 읽어 볼 수 있습니다.) ■

## 우리들 이야기



알리나 에이, 7세, 우크라이나



우리 가족, 루카스 오, 5세, 브라질



성전, 웨라이언 피, 10세, 사모아



말레이시아에 사는 열두 살 난 유진 와이는 할아버지와 장기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농구와 배드민턴을 즐겨 합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과 중국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매일 밤 부모님과 함께 경전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연차 대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경전 속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공부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 것과, 그분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토머스 에이, 8세; 아론 에이, 6세;  
시실리아 에이, 10세, 아르헨티나



### 저는 목표 세우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붙은 베개를 만들었어요. 제 목표 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침례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 목표를 쓸 수 있는 공책을 항상 간직해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언제나 따라 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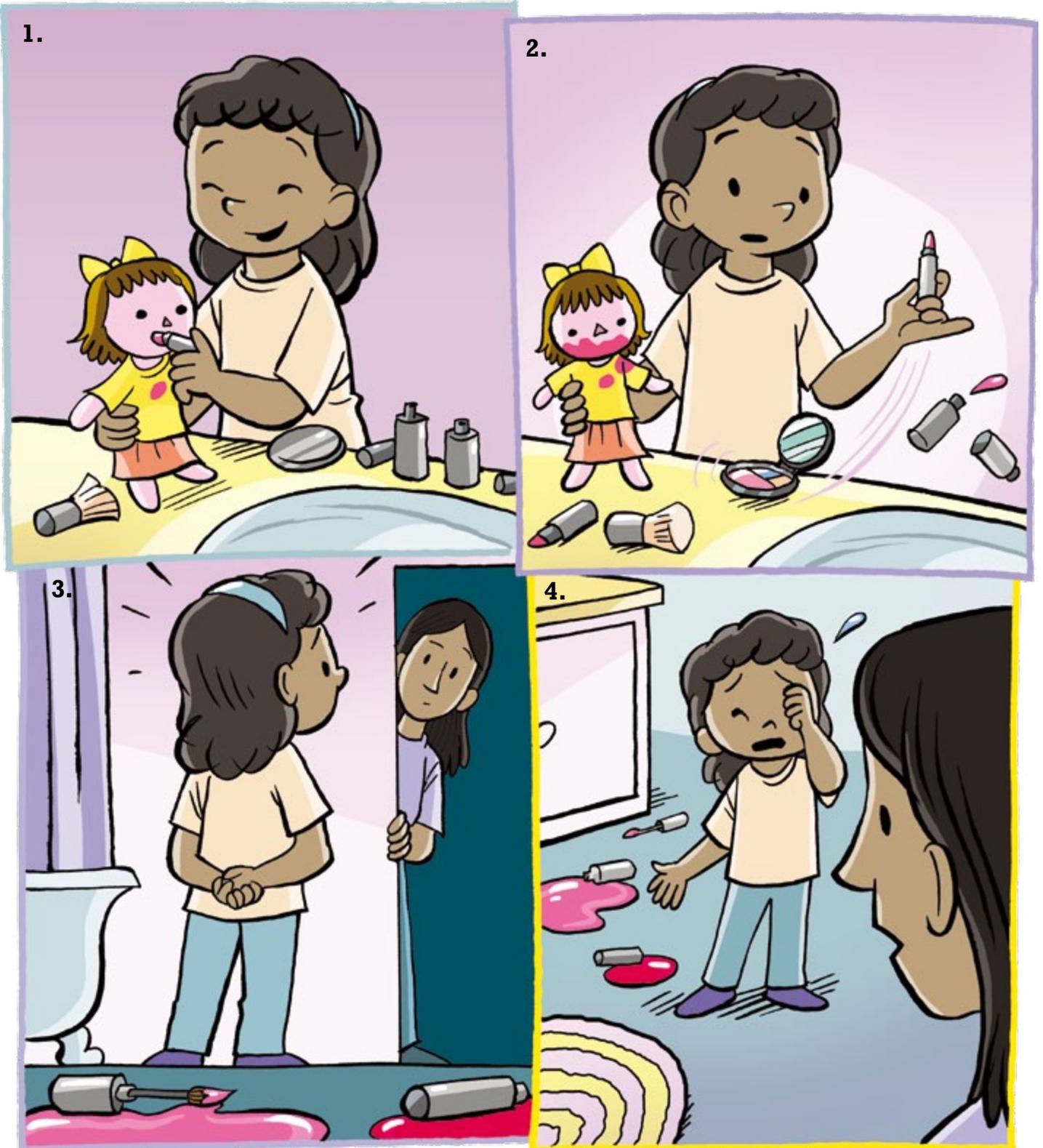
미리암 시, 8세, 멕시코



# 켈시가 실수하다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함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3조)





# 실수에서 배우기

다시에 젠슨

**우**리는 때때로 썩시처럼 실수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세요. 각 칸에서 나머지 그림과는 다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1.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2. "미안해." 하고 말하며 용서를 구한다.



3.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4.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나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어린이는 정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 찰흙, 휴대전화, 시계, 과자, 개, 인형, 깃털, 연필, 파이프 한 조각, 경진, 손가락을 찾아보세요.



#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http://news.lds.org)에 접속한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부 회장

**올** 해 초 교회는 신임 선교부 회장 110명의 이름을 발표했다. 대다수는 이번 달부터 아내와 함께 2년 혹은 3년에 걸친 부름을 시작할 것이다.

선교부	신임 회장
한국 서울	브렌트 제이 크리스텐슨
가나 쿠마시	리안 에이 홈즈
그리스 아테네	에릭 비 프리스톤
나이지리아 캘리버	존 이 코신
네바다 리노	데이비드 엔 헐먼슨
네브래스카 오마하	마이클 디 웨스턴
노르웨이 오슬로	돈 에이 에반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마크 에이 버니슬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로날드 엘 크레이븐
뉴멕시코 팜링턴	도일 엘 배트
뉴욕 뉴욕 남	케빈 이 콜더우드
뉴욕 뉴욕 북	토마스 비 모건
뉴욕 유타카	조셉 비 워스런 2세
대만 타이페이	데이비드 오 데이
덴마크 코펜하겐	션 디 시더홈
도미니카공화국 산티아고	존 더글라스
독일 베를린	헨리 더블유 코젝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윌리엄 에이치 프라우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레고리 에스 브린턴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데이비드 알 애덤스
매사추세츠 보스턴	대니얼 더블유 패커드
메릴랜드 볼티모어	마크 엘 리차즈
멕시코 과달라하라 동	루이스 에프 카마리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지 웨슬리 웨그너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	로베르토 발라데즈
멕시코 몬테레이 서	에드워드 엠 스왑
멕시코 에르모시오	알베르토 이 에르난데즈
멕시코 쿠에르나바카	브루스 시 커쉬
멕시코 탐피코	랄프 비 조든 3세
멕시코 푸에블라 북	랄프 엔 크리스텐슨
멕시코 할라파	파울로 로페즈

선교부	신임 회장
모잠비크 마푸투	파울로 브이 크레틀리
몬테나 빌링스	크리스 제이 미캠
미시시피 잭슨	마크 제이 맥다나
바누아투 포트빌라	레리 디 브루어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후안 에프 소리아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후안 시 차친
벨기에/네덜란드	알든 시 로빈슨
불가리아 소피아	마이클 에스 윌스테드
브라질 벨링	호세 시 에스시시시
브라질 벨로리존테	파스슈왈 에프 포르투나토
브라질 사우바도르 남	마르실로 앤드레조
브라질 상파울루 동	로날드 에이 페린
브라질 캄피나스	카를로스 이 페로티
브라질 쿠이아바	키스 알 레버
브라질 테레지나	알바시르 엘 시즈슬라기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	포메니오 시 카스트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북	디 레인 라이트
사우스다코다 래피드시티	커티스 이 앤더슨
서인도제도	다니엘 에스 메르 2세
스코틀랜드/아일랜드	앨런 에이치 브라운
스페인 마드리드	스캇 티 잭슨
스페인 말라가	몬테 엠 디어 2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크 엘 페이스
싱가포르	브래들리 에스 메인즈
아르헨티나 네우켄	폴 알 러블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마누엘 파리노
아이다호 포커텔로	마빈 티 브링커호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이베르망 비안 아이미
영국 런던 남	로저 시 밀러
영국 런던	데이비드 제이 조든
영국 버밍엄	알 크레이그 래스무슨
오클라호마 털사	스캇 케이 섬웨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마이클 엘 벨링애
온두라스 꼬마야구엘라	칸디도 포르투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데이비드 케이 암스트롱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제이 로버트 반 브러젠

## 새로 생긴 선교부

교회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자원을 배치하고자 기존 선교부 한 곳을 주변 선교부들과 통합하였으며, 새로운 선교부 여덟 곳을 창설하였다.

콜롬비아 바랑기야와 콜롬비아 칼리 선교부로부터 분리하여 **콜롬비아 메데인 선교부**가 새로 세워졌다.

가나 아크라 선교부와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로부터 따로 떼어내 **가나 쿠마시 선교부**를 창설하였다.

멕시코 베라크루스 선교부로부터 분리하여 **멕시코 할라파 선교부**를 새로 세웠다.

멕시코 푸에블라 선교부를 나누어 **멕시코 푸에블라 북 선교부**와 **멕시코 푸에블라 남 선교부**를 만들었다.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와 피지 수바 선교부로부터 분리하여 **바누아투 포트 빌라 선교부**를 창설하였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와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

유타 오그던 선교부를 재조정하여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서 선교부**와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중부 선교부**를 창설하였다.

네바다 라스베가스 선교부와 네바다 라스베가스 서 선교부를 재편하여 **네바다 리노 선교부**를 창설하였다.

러시아 모스크바 서 선교부는 해체되어 이웃해 있는 발트 해 선교부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선교부,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7월부터 유효하며, 그때 새로운 선교부 역원들이 부임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선교부는 347곳에 이른다.

새로 창설된 선교부 지도를 보려면 [ldschurchnews.com/articles/62067/New-missions-created.html](http://ldschurchnews.com/articles/62067/New-missions-created.html)에 접속한다. ■

선교부	신임 회장
워싱턴 디시 남	매튜 엘 리кс
워싱턴 스포캔	도널드 디 멀린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서	얼 에스 스와인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중부	리차드 더블유 모팻
유타 오그던	모리스 디 히어스 2세
유타 프로보	존 에이 맥쿤
인도 뉴델리	피터 이 새클리
알리노이 시카고	제리 디 펜
일본 도쿄	엘 토드 버지
일본 후쿠오카	시 새뮤엘 구스타프슨
조지아 애틀랜타	존 알 하딩
중국 홍콩	발 디 홉스
짐바브웨 하라레	브라이슨 시 쿡
칠레 비나델마르	프레드리코 엠 킨라인
칠레 산티아고 동	데이비드 엘 라이트
캄보디아 프놈펜	데이비드 시 문
캐나다 위니펙	커크 엠 토머스
캐나다 캘거리	하워드 니콜라스
캐나다 핼리팩스	브라이언 레빗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르네 알 엘바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케니스 티 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	데이비드 엔 와이드먼
코스타리카 산호세	채드 알 윌킨슨
콜롬비아 메데인	로베르토 오 피타치

선교부	신임 회장
콜롬비아 보고타 남	레트빈 로자노
콜롬비아 보고타 북	마크 에프 앤델린
콩고 민주 공화국 루분바시	필립 더블유 맥멀린
태국 방콕	데이비드 엠 1세
텍사스 휴스턴 남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파라과이 아순시온	피 데이비드 아가자니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설리어시 브이 커퍼시
페루 리마 남	션 더글라스
페루 리마 중부	앨런 엠 보그
페루 피우라	채드 에이 롤리
포르투갈 리스본	스토펙 엘 플루키지르
프랑스 리옹	블레이크 엠 로니
필리핀 라와	줄리어스 조나 에 프 바린터스
필리핀 바기오	윌리엄 제이 마나한
필리핀 바콜로드	말로 오 로페즈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 브이 스미스
호주 시드니	필립 에프 하워스
호주 애들레이드	브래들리 디 카터
호주 퍼스	알 브루스 린지

사진: 오사무 세키구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샌다이 선교부에서 봉사한 바 있는 옥스 자매가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이후 이루어진 개선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옥스 장로가 지진 발생 1년 후 일본을 둘러보다

지진과 그에 따라 쓰나미가 일본을 덮친 지 근 1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칠십인 회장단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일본을 방문하여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옥스 장로와 부인 크리스틴 옥스 자매, 그리고 홀스트롬 장로와 부인 다이앤 홀스트롬 자매는 지난 2월에 12일간 일정으로 구마모토, 나가사키, 샌다이, 도쿄, 도호쿠 지역의 여러 해안 도시를 방문하는 등 북아시아 지역을 순회했다.

교회 소식 기사에서 옥스 장로는 이번 방문의 목적 한 가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약 1년 전에 일어난 끔찍한 재해와 쓰나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을 만날 때 전하는 가르침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옥스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후기 성도와 선교사들, 그밖에 사람들을 만나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성별하사 [그들의] 유익이 되게 하실 방법을 찾도록” 그들을 격려했다.

브라질을 방문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서 아프리카에 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카리브 해를 찾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쿠엔틴 엘 쿡 장로, 중부 유럽을 찾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브라질에 간 닐 엘 앤더슨 장로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성역에 대해 읽고 싶으면 news.lds.org와 prophets.lds.org에 접속해본다. ■

## 교회는 회원들이 가족 역사 정책을 이해하기를 요청합니다

사라 제인 위버  
교회 소식 부 편집장

**교**회 지도자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성전 의식을 위한 이름 제출과 관련한 교회의 가족 역사 정책을 익히고 더 잘 이해하도록 촉구한다.

교회 가족 역사부 관리 책임자 데니스 시 브림홀은 New.FamilySearch.org 웹사이트 이용에 조건이 붙게 된 까닭은 “상식, 교리, 존경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조건은 간단하지만 명확하다. “사용자들은 성전 대리 의식을 위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승인 받지 않은 성명 추출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사람들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이 포함된다.” 모든 사용자는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이 조건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회의 지침서 제2권에도 나오는 이러한 지침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 교회의 대리 침례 정책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고 성전에서 의식을 행할 이름을 준비하는 것이 물론 책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브림홀 형제는 말한다. “그 특권은 이 사업에 대한 열쇠를 가진 분들을 통해 회원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열쇠는 교회의 제일회장단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위해 이름을 제출하는 회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 자신의 가계도 내에서만 작업한다.
- 유명 인사의 이름을 제출하지 않는다.
-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와 같은 승인 받지 않은 단체의 이름은 제출하지 않는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토론한 후 1995년에 수립된 교회 정책 위반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은 2012년 2월 21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교회가 대리 침례를 위해 승인 받지 않은 단체의 이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고, 수립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따르지 않는 제출자는 “기만과 조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교회 회원은 New.FamilySearch.org 웹사이트 접속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역 지도자로부터 선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성명서에는 이렇게 나온다. “한 개인이 고의로 교회 정책을 위반할 때, 그리고 사랑과 존경에서 우리나라 헌납으로 간주되어야 할 그 무언가가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브림홀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교육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업이고, 어떻게 수행하며, 누가 인도하는지, 그 권세와 책무, 열쇠와 특권에 대해 다시금 우리는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문제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모두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교회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위해 이름을 제출하는 회원들에게 자기 가계도 내에서만 작업하고, 유명인사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처럼 승인받지 않은 단체의 이름을 제출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새로운 웹사이트 준비를 위해 중독 회복 프로그램(여기에 보이는 모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중독 회복에 대한 일화를 찾고 있다.

###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회복과 치유 이야기를 찾습니다

올해 후반에 개시될 중독 회복 프로그램(ARP) 웹사이트에 대한 준비로서 교회는 중독 회복과 관련한 일화를 찾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들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arp@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낸다. 이때 정보는 기밀로 처리될 것이다.

- 이름, 나이, 성별
- 본인 사진(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함)
- 교회 소속/회원 자격
- 본인의 중독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중독에 대한 짧은 설명
- 동영상, 음성, 문서 혹은 세 가지 방법을 전부 사용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여부
- 자신의 이야기. 중독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부적절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중독 행위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치유되고 희망이 다시 생겼을 때 무엇을 느꼈으며, 현재 자신의 삶과 용서, 회개, 봉사를 통해 얻은 교훈과 축복에 대해 설명한다.

### 피지의 교회 회원들이 홍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베푼다

2월에 피지 수바에 있는 세 스테이크가 북부 및 서부 피지 지역의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음식, 생활 용품, 학용품 기부 운동을 펼쳤다.

피지는 올해 초 계속되는 폭우로 북부 및 서부 지역에 광범위한 홍수와 국지적 산사태가 발생했다.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피지 북부 및 서부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자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즉시 집회소를 개방해 집을 잃은 이재민이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 칠십인이자 교회의 피지 봉사 센터 책임자인 타니엘라 와콜로 장로는 2월 6일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홍수 경고를 받은 즉시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음식, 의류, 침구, 주방용품, 학용품 등을 모아 분류한 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



올해 후반기부터는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가 교회 역사가이자 기록자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교회 역사가로 부름받다

제 일회장단은 최근 칠십인 말린 케이 켄슨 장로의 뒤를 이어 칠십인 회장단인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를 교회 역사가이자 기록자로 불렀다.

스노우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으며 켄슨 장로는 2012년 10월 연차 대회 때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된다.

그때까지 스노우 장로와 켄슨 장로는 훈련 및 업무 인계를 위해 함께 일할 예정이다. ■

개척자들이 저를 가르쳤어요

지난 12월에 저는 낙담해 있었기에 집을 장식하거나 성탄절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 12월호 리아호나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개척자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념했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물은커녕 먹을 것도 없었고 악기도 없었지만 휘파람으로 장단을 맞추며 춤을 쳤습니다.("작고 단순한 일"의 "초기 개척자들의 성탄절" 8쪽 참조) 그 기사 덕에 제 태도는 바뀌었고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인식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나 로사 드 멜로 페히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매일 하나님을 찾다

2012년 1월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애덤 시 울슨의 기사 "세계의 불가사의를 재발견하고 ..... 영적인 무감각을 극복하다"(20쪽)를 읽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에 실린 메시지가 영감에 따른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제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 제 삶에 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 아라실리 벨로퀴 디 이아노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제출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우리 전통의 힘”, 16쪽: 가족과 함께 이 기사를 읽는다. 열 톰 페리 장로의 다음 말씀을 강조한다. “개척자들이 사막을 장미처럼 꽃 피웠듯이 우리 삶도 그들의 가치와 전통을 따를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초기 개척자들이 보여준 모범을 잘 따를 수 있는지 물어본다. 찬송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를 부르고 마친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라”, 35쪽: 그릴로 형제의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여러분 혹은 지인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에 맞설 때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가족들이 자신의 삶에 이

.....

“야외” 가정의 밤

나는 10살 때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침례 받았다.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가정의 밤은 우리 가족의 핵심이었다.

이제 교회 회원이 된 지 45년이 훌쩍 넘었다. 나는 다섯 자녀와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월요일 저녁 시간은 가족을 위해 비워둔다.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우리는 “야외” 가정의 밤이라고 부르는 좀 긴 활동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병문안을 가고 공원에서 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 뵙는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야외 경험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던 일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누군가 그들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다. ■

티타 마분가 오비알, 필리핀



메시지를 적용하도록 돕는다. 이 기사의 마지막 두 단락을 읽고 마친다.

“순수한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54쪽: 이 기사에서 가르치는 ‘간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눔으로써 공과를 시작한다. 그런 후 간증을 나누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요약한다.(56~57쪽 참조) 영감에 따라 가족들에게 가정의 밤 시간에 서로에게 간증을 나누거나 일지에 자신의 간증을 써보도록 권유한다.

“친절한 속삭임”, 59쪽: 누가복음 6장 27절 참조. 제임스와 칼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자녀들에게 첫 장 하단에 나오는 질문에 답해보게 한다. 가족에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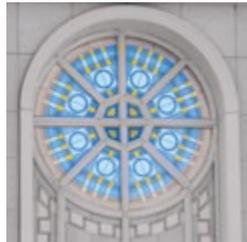
#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줄리 틴슨

**몇** 해 전, 나는 밤늦게 실시하는 성전 청소를 하기 위해 유타 바운티풀 성전에 갔다. 청소하러 모인 사람들 수에 놀라며, 잠시나마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해서라도 일찍 떠날 마음이었다. 그러다 마음속으로 빈정댔다. ‘물론 일찍 가라고는 절대 안 하겠지. 우리 모두를 일꾼처럼 부러먹을 일을 찾아내겠지. 우리를 2시간 내내 이곳에 붙잡아 두는 게 자기를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예전에 청소하러 왔을 때 나는 한 시간이나 넘게 옷 터는 일을 했는데, 사실 그 옷들은 털어도 먼지조차 나지 않는 옷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청소가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시간 동안 성전을 청소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분명 나는 그날 밤 봉사하려는 소망보다는 의무감에서 성전에 왔다.

우리 조는 영적 모임을 하는 조그만 예배실로 안내되었다. 그런데 성전 관리자가 영적 모임을 집행하며 한 말이 성전 청소 임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분은 우리가 성전에 온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청소가 필요 없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에 있는 정말 성스러운 곳 중 하나인 이곳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성전을 때 묻지 않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속에 사무쳤고, 나는 주님의 집을 보호해야겠다는 새로운 열정으로 내가 맡은 곳으로 갔다. 나는 부드러운 페인트 솔로 문틀의 작은 틈새며 굽도리널(벽이 마루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청소하러 성전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곧 청소는 진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횡목-웁긴이), 식탁과 의자 다리 등에서 먼지를 털어냈다. 예전에 이 임무를 맡았더라면 이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먼지를 털어내며 바쁘게 보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로 미세한 틈 사이 먼지까지도 털어내려고 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나는 일하는 동안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집 안 청소를 할 때 그러한 미세한 곳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맨 처음 보게 될 만한 곳만 청소하며, 가족과 나만 아는 곳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다.

나는 그 다음으로 내 복음 생활도 이와 비슷했던 적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원리나 임무 지명은 그런대로 해 나가려 했지만 내 가족이나 나만 아는 것은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교회에 나갔고, 부름도 있었고, 지명받은 임무도 수행했으며, 방문 교육도 했지만 모두 다 와드 회원들 눈에 잘 띄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성전에 간다든지, 개인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경전 공부나 기도를 한다거나 가정의 밤을 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서 공과도 가르치고 말씀도 했으나 때때로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슴속에 참사랑이 부족했다.

성전에서 보낸 그날 밤, 나는 들고 있던 페인트 붓을 살펴보며 이렇게 자문했다. “내 삶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작은 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내 삶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깨끗이 하기로 계획하는 것보다 그러한 부분이 절대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야고보서 1:27) 해야 한다는 점을 들을 때마다 성전 청소를 하며 배운 교훈을 기억한다. ■